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2014



VOL. 211

haninnewsinni@gmail.com

謹頌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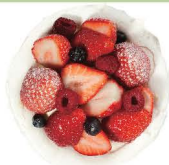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 베이워크점 & 치토스점 오픈!!



자카르타의 새로운 명소 베이워크 몰  
아름다운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색다른 뚜레쥬르를 즐기세요



## TOUS les JOURS Store Location

Mal Senayan City, Lt.5  
Tel. 021 7278 1209

Mal Kelapa Gading 1, Lt.1  
Tel. 021 452 9539

Mal Emporium Pluit, Lt.4  
Tel. 021 6667 6619

Mal Kota Kasablanka, LG-98  
Tel. 021 2946 5184

Mal Gandaria City, GF, MG-05  
Tel. 021 2900 7794

Plaza Indonesia, Lt.5 E03-E04  
Tel. 021 2992 3929

Summarecon Mal Serpong 2, GF-228  
Tel. 021 2931 0620

Central Park, Lt.1-117  
Tel. 021 2920 0287

Mal Alam Sutera, G-22,22A,23,23A  
Tel. 021 3044 8715

Supermall Karawaci, UG-23  
Tel. 021 5421 1968

PIM Street Gallery, Lt.1  
Tel. 021 2952 9749

Summarecon Mal Bekasi, GF-166  
Tel. 021 2957 2491

Margo City, Lt. 1  
Tel. 021 2904 9255

Baywalk Mall, GF 03&05  
Tel. 021 2962 9502

Cilandak Townsquare, GF 060 & 061  
Tel. 021 2904 2814

touslesjoursindonesia

KakaoTalk TOUS les JOURS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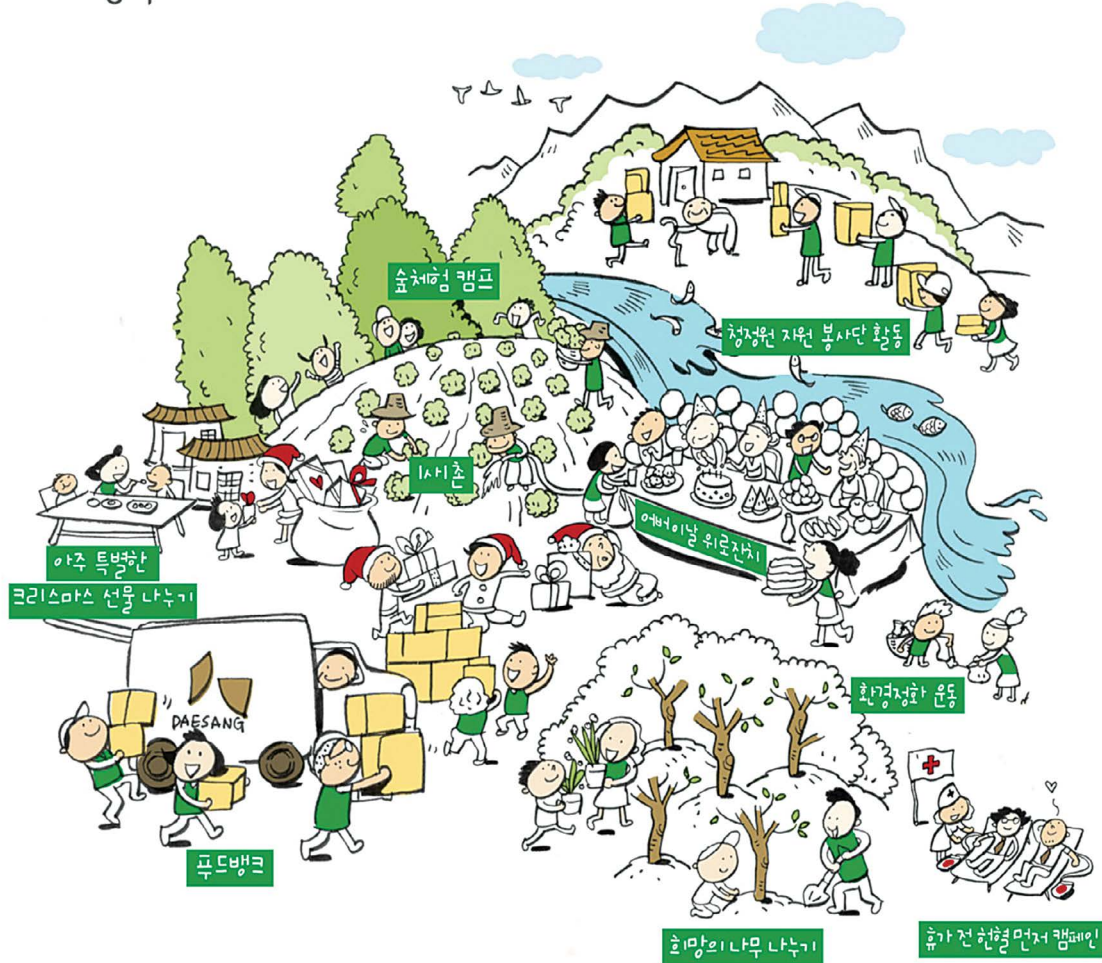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 62-21-521-2180



## 대상주식회사와 함께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이 자랍니다

작은 나눔에도 누군가는 용기를, 또 누군가는 희망을 꿈꿉니다.

건강한 먹거리 연구부터 행복한 나눔까지-

더 풍요롭고 따뜻한 세상을 위해 대상주식회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상주는 60여개 청정원봉사단을 통해 푸드뱅크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을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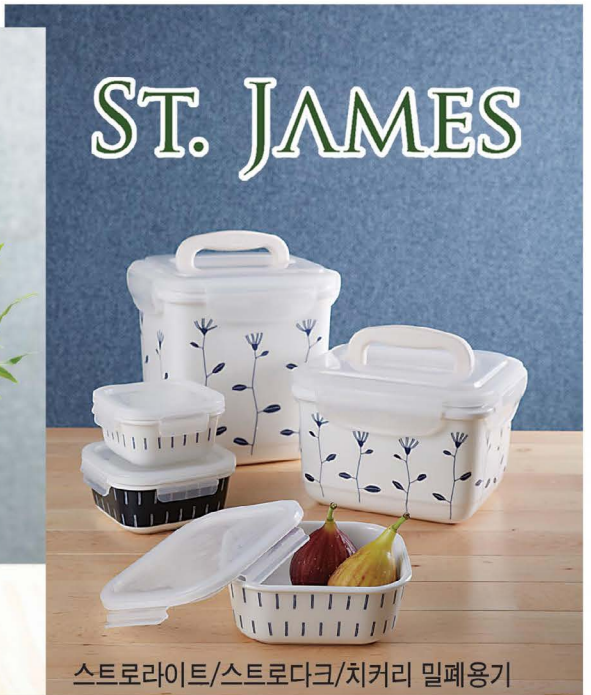




스트로라이트/스트로다크/치커리



치커리



ST. JAMES

스트로라이트/스트로다크/치커리 밀폐용기

# 자연을 담은 영국 친환경디자이너 레이첼바커 시리즈

자연의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친환경도자기 디자이너  
RACHEL BARKER 레이첼바커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도자기를 디자인하는 영국 친환경도자기 디자이너



NEW  
메도우 플라워



NEW  
메도우 플라워 ZEN COOK



NEW  
잉글리쉬 가든

 Hankook Ceramic

SHOWROOM Lotte Shopping Lt.2 Tel:021)2988-9214~5, Pondok Indah Mall Lt.3 Tel:021)7592-6015  
Lippo Mall Kemang Lt.2 Tel:021)2952-8529~30  
SNOW BOWL(Café) Lotte Shopping Lt.2, Lippo Mall Kemang Lt.2 Tel:021)2952-8530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동중 인도네시아는

1 22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 (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 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 하나은행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받아가다!

미래의 예금이자를 삼성 스마트폰으로 미리 받으세요



## Hana GALAXY program

### 이자선지급형 예금상품

#### 이자선지급형 예금상품이란 ?

고객님께서 불입하신 원금 및 적금액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이자를 예금 가입시점에 지급하되 현금이 아닌 비금융상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고객님의 자금 상황에 맞추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 A. 목돈운용식 (Saving Lock)

- 추가 적립액 없이 최초 예치금만으로 프로그램 운용

##### B. 적금식 (Installment type)

- 보증금은 작게, 월불입액은 크게 (Low Initial Deposit)
- 보증금은 크게, 월불입액은 작게 (Low Monthly Installment)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 HEAD OFFICE:

Wisma Mulia  
Jl. Jend. Gatot Subroto No. 42, Lt. 52  
Phone: 021-5220222, 5220223 Fax: 021-5220133  
SWIFT: HNBNDJA  
E-mail: hanabank@hanabank.co.id



2014 甲午年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甲午年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1.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2.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3.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입니다

물류운송 &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PT. HANINDOEXPRESS utama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 H.R. Rasuna Said Kav.8-9 Kuningan  
Jakarta 12950 Indonesia

Tel: (62-21) 2525 123 (Hunting)  
Fax: (62-21) 2520 551, 2520 556  
e-mail: hanindo@hanindo.net  
homepage : www.hanindoexpress.com



## <한인회에서 알립니다>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가제) 인도네시아 한인진출 70년사” 발간과 관련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재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의 협조 하에, 현재 ‘편찬 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직능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열의를 가지고 계신 재 인도네시아 동포 중, 이 역사적인 과업에 동참하실 희망자들을 기다립니다.

-아 래-

분야	내 용	소요인원
집필진	연대별, 단체별, 업종별, 사회분야별	4~5명
편집진	일반편집, 디자인	10여명
자문단	역대 한인회사무국장, 원로 동포	4~5명
감수	감수, 교정 전문가	4~5명

☎연락처

- ▶ 한인회 사무국장      김재민      0818 870242
- ▶ 한인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 동포 안내문

“더불어 사는 세상” 바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입니다.

-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사는 한인사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위의 3대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한인회장과의 만남의 장과 신문고 코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한인회장과의 만남의 장 (시간.장소 변경)

한인회 사무실 이전(대사관 영사동 4층)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면담시간과 장소가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한인회 사무실 (대사관 영사동 4층)

2. 신문고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상설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코너입니다. (단, 한인간의 험담과 모함, 비방은 절대 사절하며 한인간의 사업관계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관련 법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한인뉴스후원사로

##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한인뉴스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10

2014년 갑오년 신년 연하장<손인식>.....12

2014년 신년사<김영선대사>.....14

2014년 신년사<신기엽한인회장>.....16

2014 신년인사.....18

이모저모 한인사회.....22

감사 송년의 밤

대사관 신년 하례식

대사관 개관식

포스코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가동

한-인도네시아, 찰리웅강 살리기 착수

람병지역 기업 방문 및 동포 간담회

2013 꿈키움캠프 in 인도네시아

꿈나무 학교 신축 기공/자총련 송년모임

2013 한-인도네시아 CSR포럼



해남 땅끝해맞이 축제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심지현

한인뉴스 신년 특대호를 만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2014년 새해에 잘 도착했습니다.

문득 학년이 오르고 새 수첩을 준비하는 등  
정리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설렘과 열정이라는 연륜을 가득 붓고 2014년을  
시작해봐야겠군요!

지난 한해동안 관심과 애정으로 한인뉴스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한-인도네시아 자본시장 포럼 벤처, 중기 지원 세미나 Korea Tourism Week 영화산업 협력공동세미나 땅그랑 반튼 한인회 소식 발리 한인회 소식 스마랑 한인회 소식 JIKS 소식	CNN선정 한국의 명소50.....56
12월 월간 경제 브리핑.....44	인도네시아약용식물(코코넛나무)<백진협>.....58
기업 탐방(PT. Hankook Ceramic).....46	Jalan-Jalan Jakarta/직물박물관 <사공경>...60
말(午)<편집부>.....48	행복에세이 <서미숙>.....64
내 마음의 뜰<시:서미숙/그림:이태복>.....49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66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특급조언.....50	문화탐방기(보고르의낙원)<권신주>.....68
오해하지마세요, 다를 뿐입니다<신성철>.....52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72
풍경과 사람<엄종환>.....55	계약법 <이승민>.....75
	화 도 소 .....80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2014년 갑오년 신년 연하장





謹  
賀  
新  
年

### 山海(산해)

### 기운은 산 같고 마음은 바다 같기를

念! 잊지 말아야 하리.  
무엇에든 한 가지에 마음을 모으고,  
안으로 마음 모으기를 잊지 말아야 하리.

지혜와 삶 함께 닦아 내 몸과 영혼 함께 뻗어나가야 하리(智生雙修 形魂俱衍).

한마음으로 참을 실현하는 나여야 하리(一心眞我).

어찌 아니라, 마땅히 그러하니라(安得不然).

천하만사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으니(天下萬事 先在知我).

나를 알려고 할진대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는가(其欲知我 自何而始)?

2014, 갑오년 새해!!

기운은 산 같고 마음은 바다 같기를(氣山心海) 날로 나아가고 달로  
창성하기를(日進月昌)

2014, 甲午年 元旦 謹之



인재 손인식(외제가, 시인)



## 2014년 신년사

### 힘차게 도약하는 청마의 기상으로...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가족 여러분!

2014년 청마(靑馬)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는 말띠의 해 중 가장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비상(飛上)하는 청마처럼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모든 면에서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관계발전이 있어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사관과 동포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개최한 수많은 수교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소통과 이해가 한층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0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인도네시아 국민방문을 통해 양국은 지난 40년의 우정을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100년을 향한 항해의 새로운 뜻을 올렸습니다.





미래협력의 새로운 첫 장을 여는 2014년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 시 양국 지도자의 참의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방산, 인적교류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창조경제 육성, 지속가능 개발,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 등 양국 간 협력을 다차원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4년은 '행복'의 양국 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양국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대사관과 우리 동포사회, 진출기업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에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와 진출기업들이 건설한 기초가 되었듯이 행복한 양국 관계 건설에 우리 동포사회와 진출기업들이 그 중심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 간 관계는 물론 국가 간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진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곳곳의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한 모범적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항상 소외된 주변을 돕는데 앞장서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인사회가 국민행복을 넘어 지구촌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은 올 한해 우리 동포들의 화합과 행복증진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동포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청마의 기상으로 대사관과 우리 한인동포 그리고 진출기업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더욱더 정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주인도네시아대사 김영선





## 2014년 신년사

#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찬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동과 성공, 건강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동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더욱 친근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6년만의 대홍수로 25만명의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신속한 모금으로 15억7천만 루피아 상당의 금품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줄수 있어 참으로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으로 양국의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진일보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더욱 역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이제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성숙한 동포사회로서 외국인 사회중 가장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도네시아 법을 지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축복받는 한인사회를 만들고 가꾸어 후대들에게 물려 주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2,100여 한인기업이 진출 10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5만여명의 한인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

와 인도네시아 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를 함께 가꾸어 갑시다.

지난 한해 동포 여러분께서 정성껏 보내 주신 개인회비 및 법인회비 6천만 루피아를 사회봉사 단체중 6단체(무지개공부방, 밀알학교, 해피센터, 파나마라 어린이 합창단, 사랑의 전화, 굿네이버스)를 선정, 각 1,000만 루피아씩 불우아동을 위하여 나눔의 축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동포 여러분의 더욱 뜨거운 회비 동참으로 더 큰 나눔의 축복을 받는 한인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소통이 시작됩니다. 또한 소통은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소통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우리 모두 “당신,멋져” 할때 진정한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됩니다.

당: 당당하게 삽시다. 정도를 걸으면 누구에게나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신: 신나게 삽시다. 매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면 신이 나고 건강해집니다.

멋: 멋있게 삽시다. 누구에게나 베풀면서 또 나누면서 산다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 저 주면서 삽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2014년 새해에는 한인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당신,멋져’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더불어 사는 세상’ 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십시오.

2014년 새해 아침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영



# 2014 신년 년

친애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와 정성으로 2013년도 감사함으로 마무리 합니다.

지난 한해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성보다는 감사할 일들로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2014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들 때 함께 위로해 주며 기쁠 때 함께 축하해주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에 늘 감사 드리며 모든 사업과 가정에

복된 일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명예회장,

민주평통아세안지역회의부의장 승은호

2014년에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굳건한 이념위에 평화동일  
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길 바라며 750만  
해외 동포들의 지시적 안목이 튼튼한 조국을 세워  
가는데 밑거름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2014년 새해에 재인도네시아 교민여러  
분의 가정과 사업장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  
쳐 나갈 기도합니다.

민주평화동일 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 박동희 올림

새해 벽두에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을 해본다.

새해라고 뭐 특별히 달라지겠냐만  
10% 더 잘하고, 생각하고, 베풀자.  
새해 만복이 한인동포 가족들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한인뉴스 편집인 조규철

숨가쁘게 달려 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 상공인들이 하나되는 한 해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상공회의소를 적극 지원해 온 우  
리 동포 기업들뿐 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상공회의소  
에 힘을 실어준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14년 새해는 힘차게 도약하  
는 한 해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회원사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며 모두 함께 가는 한 해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의 발전과 인도  
네시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더불  
어 성장해 가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GoGlobal, Kochamtogether!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 창 근

# 인사

지난해는 세계한인경제인들(월드옥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하였고, 성황리에 막을 내림으로서 ‘세계 속의 한민족, 하나 되는 경제권’이라는 슬로건으로 한류경제의 발전에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은 우리 경제인들이 더욱 한마음이 되어 경제협력확대와 교류증진을 통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움, 희망이라는 것은 어찌면 우리를 변화 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 말의 해인 갑오년이 더욱 기대되는 까닭입니다. 2014년, 갑오년, 말띠해의 멋진 한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인여러분과 기업인들께서도 튀어 오르는 말처럼 승승장구하는 대박 나는 한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힘 있고 자신감 있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월드옥타 (세계한인 무역 협회) 자카르타지회장 강 희 중

지난한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월드옥타 인도네시아 지회와 차세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갑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일에 발전과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드옥타 인도네시아 지회 차세대 대표  
김필수 올림

2014 갑오년 희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인한 도전과 역동적인 한인동포기업이 견실하게 서가며,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시고 청마처럼 활기차고 힘찬 도약을 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국제용무도연맹  
인도네시아지회 회장 배응식

“문화적 행복이 가득했던 2013년은 이미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참 많은 행사와 공연 속에서 한류의 존재와 위상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 라는 말이 있듯이, 어찌면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2014년도를 향해 더욱 짙게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에게 1998년도 외환위기를 극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갑오년의 청마답게 힘차게 도약하는 한민족의 저력이 발휘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문환/편집위원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기분 좋고, 신명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열정과 희망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14년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회장 양영연

### 문화의 길

겸손하게 작은 목소리로 걷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역사까지 담고 있는 길

그 깊은, 그 아름다운, 그 침묵,

때로는 스스로의 맨살을 뜯는 외로운 속에 걸어가야 하는 길

청마(靑馬) 유치환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몰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고 생명을 노래하며 새로 찾아오는 시간 속으로 힘차게 걸어가야 하리

청마(靑馬)처럼

한\*인문화연구원장 사공경

존경하는 ROTC 동문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교민 여러분!

2014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의 폭등속에서도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최대위기를 잘 극복하였고 인니수교 40주년을 맞아 고국의 박근혜대통령께서 방문하시어 한인사회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였던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2014년은 인도네시아 대선/총선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한해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한인사회가 발전하는데 저희 150여 동문 및 가족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동문회가 되도록 조그만 힘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원단  
재인도네시아ROTC지회  
제17대 회장 김수용

###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인니 봉제협의회 전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 우리 회원사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도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 내실있는 성장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의 장기적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니 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여러분!  
 꿈과 희망의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  
 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가슴속에 붉은  
 태양 같은 뜨거운 꿈을 품으시고 도전  
 하시어,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계획했던 일들을 모  
 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기 바라며,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웃음꽃이 넘치며 행  
 복과 건강이 가득한 멋진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유총연맹인도네시아지부 회장 현상범

### ‘동행’ 하는 한 해가 되길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동포여러분,  
 의미 있고 활기 넘쳤던 지난해를 보내며, 우리는 새  
 로운 마음과 새 희망으로 201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빨리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 모든  
 것을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전진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함께’ 한다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단결된 힘으  
 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도 힘을 합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더욱 쉽게 목표  
 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포사회도 마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단결하여 ‘동행’ 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든다면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더욱 더 멋진 동포사회를 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한인사회 구성원 및 단체들 모두가 동행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격려하여,  
 따뜻한 2014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회장 박현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찌까랑 한기협회원사 여러분 금년 한해  
 는 그 어느때 보다 긴박한 상황이 많았  
 습니다.

2013년 한해는 인도네시아 노조의 강  
 령한 임금인상 요구 및 격렬한 노조 활  
 동으로 한국 기업이 위축이 많이 되었  
 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안정세로 들어서는 분  
 위기지만 정부 발표 임금인상을 맞추려  
 면 쉽지않은 노사 간 협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쪼록 현명하게 대처 하시어 장기적 으  
 로 사업을 영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 기업도 한층 성숙된 모  
 습으로 작은 부분 이라도 노동자 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풀어야 할때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2014년 은 모든 회원사 가 좀더 좋은 여  
 건 속에서 사업을 영위 하시길 바랍니다.  
 닥내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  
 원 하면서 신년사 로 가름 합니다.

찌까랑 한기협 황성회부회장 배상





##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감사 송년의 밤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12월18일 로얄 자카르타 골프클럽에서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감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영선대사와 신기엽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승은호한인회명예회장을 비롯한 대사관직원, 한인회 자문위원, 이사진, 상공회의소임원, 지역한인회장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속에 스며든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특별기획물 “위대한 도전” [40년 지기 두 친구]란 제목의 영상물 감상으로 문을 열었다.

신기엽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숨가쁘게 이어 온 한-인도네시아 수교40주년 행사로 한인회가 어느 때보다 생동감 있었다.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한인회가 화합의 모습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존경받는 동포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년에도 신뢰와 소통으로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오늘 이 자리도 나눔으로 축복받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고 말했다.

김영선대사는 격려사에서 “양국관계의 황금기에 화목하고 체계적으로 한인사회리더의 역할을 다해준 것에 감사한다.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이어 불우아동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한 한인사회단체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및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다. 각 Rp.1,000만씩 여섯곳 (무지개 공부방-고재천 선교사, Happy Center- 최원금 선교사, 밀알학교-박현순 교장, 사랑의 전화-정선 사장, 파라메라 미션 콰이어-김경화 단장,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박동철 지부장)에 전달했으며, 행사 참가비로 모인 \$5,800를 자카르타 한국 국제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액 기탁했다.



## 한인회 회비 납부명단 (불우이웃돕기 성금)

## - 법인 회비 -

번호	법인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1	PT. KOIN SUKSES	2013	5,000,000	
2	PT. DAILY INDONESIA	2013	3,000,000	
3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3,000,000	
4	PT. DONG JUNG INDONESIA	2013	3,000,000	
5	PT. DADA INDONESIA	2013	3,000,000	
6	PT. KCTC SAMUDERA	2013	3,000,000	
7	PT. LEMBU SWANA PERKASA	2013	3,000,000	
8	PT. MERINA	2013		300
9	PT. DOHWA ENGINEER	2013	3,000,000	
10	KOREA AGRO FISIORIS	2013	3,000,000	
11	KORINDO GROUP	PT. BIMA RUNA JAYA	2013	3,000,000
12		PT. ASPEX KUMBONG	2013	3,000,000
13		PT. KORINDO HEAVY INDUSTRI	2013	3,000,000
14		PT. TUNAS SAWA ERMA	2013	3,000,000
15		PT. KORIN TIGA HUTANI	2013	3,000,000
총 금액			Rp 44,000,000	\$300

## - 개인 회비 -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Rp)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Rp)
1	김영선	2013	300,000	18	김문환	2013	300,000
2	승은호	2013	300,000	19	황의상	2013	300,000
3	신기엽	2013	300,000	20	이완식	2013	300,000
4	이인호	2013	300,000	21	임성용	2013	300,000
5	김영환	2013 - 2017	1,500,000	22	강희중	2013	300,000
6	김재민	2013	300,000	23	장천수	2013	300,000
7	신충일	2013	300,000	24	승범수	2013	300,000
8	홍문기	2013	300,000	25	최석일	2013	300,000
9	홍석영	2013	300,000	26	이현	2013 - 2017	1,500,000
10	조규철	2013	300,000	27	박영규	2013	300,000
11	정무웅	2013	300,000	28	지동주	2013	300,000
12	전영돈	2013	300,000	29	한상재	2013	300,000
13	김문호	2013	300,000	30	이병기	2013	300,000
14	김일영	2013	300,000	31	엄종환	2013	300,000
15	강덕재	2013	300,000	32	송광장	2013	300,000
16	최양기	2013	300,000	33	오세윤	2013	300,000
17	황윤홍	2013	300,000	총 금액			Rp 12,300,000





주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엽 회장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 발전기금으로 5800달러를 전달했다.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발전기금 기탁자 명부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1	강호성	11	김영만	21	박철우	31	엄정호	41	임경중
2	강희중	12	김영옥	22	배도운	32	오세명	42	임성필
3	곽삼섭	13	김영주	23	배상경	33	윤태현	43	정무웅
4	김경국	14	김우재	24	배정옥	34	이종후	44	조규철
5	김문호	15	김우진	25	송창근	35	이종현	45	조용준
6	김문환	16	김재유	26	승은호	36	이준하	46	최광수
7	김병철	17	김종현	27	신기엽	37	이지현	47	최상학
8	김성국	18	김주철	28	신만기	38	이진수	48	최정남
9	김세형	19	김준규	29	양시완	39	이진호	49	하연수
10	김송정	20	김희년	30	양영연	40	이철훈	총금액	USD5,800

###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납부 명단 (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1	이지현	2014	6,000,000	
2	김주철	2014	3,000,000	
3	이종후	2014	1,000,000	
4	백승래	2014		200
5	이승민	2014	300,000	
총 금액			Rp10,300,000	\$200



## 대사관 신년하례식

2014년 1월2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1층 대강당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대사관직원, 한인단체 주요 간부 및 지상사 대표 등 각계인사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선대사는 신년사에서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있어 황금기이다. 지난 2013년은 대사관과 동포 사회가 함께 준비한 많은 수교 기념 행사와 10월 중순에 박근혜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의 참석과 인도네시아 국민방문을 통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차원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발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대사관과 동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 한해 우리 동포들의 화합과 행복 증진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동포 사회와 한 마음으로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신기엽 한인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동안 인도네시아 한인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많은 행사를 치루면서 두 나라가 더욱 친근해졌다고 자부한다. 특히 연초 대홍수로 25만명의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한인동포들이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모금으로 15억 7천만 루피아 상당의 금품을 전달함으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성숙한 동포사회로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나눔으로 축복받는 사회,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를 만들어가자. 특히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진정한 소통을 이루며 그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승은호명예회장은 “김영선대사님이 마무리공사를 진두지휘해 예정대로 훌륭한 대사관청사와 한인회 건물을 완공했다” 고 말했다.

공식행사를 마친 후 각계인사는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개관식

주인도네시아 신축 대한민국 대사관 개관식이 19일 오후 대사관 신청사에서 개최되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행사는 청사 신축 경과보고로 시작되었다. 2011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31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김영선대사는 “1977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 및 동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금의 대사관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대사관을 개관하는 오늘은 국제적 위상과 대사관의 품격이 높아지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특히, 준공식 제막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한·인도네시아 경제 수교에 황금기로 양국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때에 대사관 신축은 가슴 뭉클한 감동의 자리이다. 그동안 수고해준 시공사 및 건축위원과 코리아 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기업 한인회장은 축사에서 “역사적 현장에서 축하를 하게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또 하나의 40년을 데뷔하여 최선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사 표창식에서는 동포사회의 봉사정신으로 모범이 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또한 제 15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 시상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우재 옥타 회장은 대통령 훈장인 동백장을 수여 받는 영예를 안았다.

<표창 수상자>

\*훈장 (동백장)  
김우재 옥타회장

\*신축청사 관련  
표창 수상자 (총 11명)  
황정윤 아이엠이엔씨 대표  
국중춘 두아 사프리아 대표  
김종근 아트쿨 대표  
이강용 미트라자야 대표  
김형일 사이버월드 인도네시아 과장  
김상진 금강인터넷서널 대표  
짐백 토탈 인도 부사장  
이광휴 토탈 인도 이사  
김수덕 로얄 헤리티지 대표  
이창우 디엔에스티 대표  
강영배 성신석건 대표

\*동포대상 대사표창 수상자 (총 35명)  
개인표창: 총 18명  
김주철 스타 캠텍스 대표  
김영주 테와 찌뜨라 스자띠 대표  
김중화 나라 섬밋 대표



류건상 코린도 그룹 본부장  
 배응식 경승 인터네셔널 인도네시아 대표  
 송성욱 지 에이 인도네시아 이사  
 신만기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 대표  
 신정일 자카르타 극동방송 대표  
 안광진 ERNST & YOUNG 인도네시아 이사  
 양주수 인도코 여행사 대표  
 이상일 코이카 과장  
 이순재 코원 고문  
 이일하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이종현 레오 코린시아 대표  
 임경애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전찬인 동주 라야 인도네시아 대표  
 조용재 성장 인도네시아 부사장  
 최광수 빅스타 인터네셔널 트레이딩 대표  
 단패표창:1  
 인우회  
 언론표창:2  
 자카르타경제일보사  
 정선 한인포스트



\*인터넷 문학상 수상자  
 최강오 시부문 가자  
 김태림 청소년 초등부문 우수상





## 포스코,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가동



### 동남아 최초 용광로 화입식 가져 ... 국내 248개 기업 동참

포스코는 23일 인도네시아 찰레곤에서 연산 300만t 규모의 용광로에 첫 불을 지피는 화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입식에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영부인, 모하메드 술레만 히다얏 산업부 장관, 기타 위랴완 무역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 백성택 ASEAN대표부 대사, 이르반 크라카타우스틸 사장과 고객사, 시공사, 공급사, 외주파트너사, 지역 주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양 회장은 “지난 30개월간의 일관제철소 건설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한국의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힘을 합쳐 성공할 수 있었다” 며, “포스코가 제철보국 이념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듯 크라카타우포스코도 인도네시아에서 포스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고 말했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이 7대3 비율로 합작했으며 제선, 제강과 후판공정을 갖추고 있다. 연간 슬라브 180만t과 후판 120만t을 생산한다.

가동원년인 2014년 영업이익의 흑자를 달성을 위해 슬라브 150만t과 후판 60만t을 인도네시아 내

수 판매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입산 철광석 대비 가격이 저렴한 인도네시아 철광석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사용하는 등 혁신적인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일관제철소 사업에는 건설, 발전, IT 등 각 분야의 패밀리사 역량을 총 집결함으로써 해외 제철소 건설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포스코건설은 제선, 제강, 후판공장 등 일관제철소에 대한 종합 엔지니어링과 건설을 총괄했으며 포스코에너지는 제철소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200MW 기력발전소를 건설을 담당했다. 포스코ICT는 EIC 엔지니어링 및 IT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스코캠텍은 석회소성로 및 화성부산물 처리설비를 맡았으며 포스코엠텍은 쇳물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탈산제 공장을 설립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철강재의 해외 수출 및 내수판매를 지원하고 현지 신규 자원개발에도 나선다.

포스코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가동을 통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를 연결하는 철강벨트를 완성하고 동남아시아를 적극 공략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철강사로 지속 성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고 밝혔다.



## 한-인도네시아, 찰리웅강 살리기 착수

‘자카르타 젓줄’인 찰리웅강을 살리기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찰리웅강 복원 시범사업이 27일 자카르타 이스티크랄 사원에서 시작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날 오전 이스티크랄 사원에서 발타사르 캄부아야 인도네시아 환경장관,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 양국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찰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찰리웅강 복원 사업은 양국 환경부와 KOICA이 900만 달러를 들여 동남아시아 최대 이슬람 사원인 자카르타 이스티크랄 사원 경내를 가로지르는 찰리웅강 주변 하천을 2015년까지 복원하는 사업이다.

사원 주변 하천의 상류 부분에 하루 500t 처리 규모의 지하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강변 300여 m 구간에 친환경적 휴식공간이 조성되며 주민들

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센터도 들어선다.

김영선 대사는 “이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상징인 이스티크랄 사원에서 시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이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한강 복원·관리로 얻은 경험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리웅강은 자바섬 서부 고산지대 뿔짜에서 시작돼 자카르타를 거쳐 자카르타만으로 흐르는 강으로 1천100만 자카르타 시민의 식수원이지만 30여 년간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심각하게 오염돼 도심에서는 하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한국 정부와 물 관련 업계는 이 사업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 중인 약 10조원 규모의 13개 주요 강 복원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람뽕 지역 기업 방문 및 동포 간담회 개최

**주** 인도네시아 김영선 대사는 12월 1~2일간, 수마트라섬 최남단 반다르 람뽕을 방문, 현지 우리 기업을 시찰하고 동포들을 격려하는 한편, 람뽕주 부지사 및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람뽕 지역에 우리 ODA 자금으로 구축된 ‘한-인도네시아 정보접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길에 이루어진 것이다.

12월1일, 김영선 대사는 람뽕에서 활발하게 조업 중인 우리 기업인 “PT. 한중 인도네시아(회장 박영택)”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관리자 및 현지 종업원들을 격려하였다.

PT. 한중은 해양가스/석유 시추설비, 발전설비, 제철/화학공장 설비, 크레인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7만평이 넘는 대지에서 1,500여명의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동 분야 인도네시아 3위 안에 드는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한국중공업이 창립한 이래 2001년 두산



중공업이 인수, 2004년에 ㈜원일(경남 함안 소재)이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또한, 반다르 람뽕 지역 동포 가족 40여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접수,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영사서비스도 실시하였다.



▲ 인터넷 라운지 시설 시연 (왼쪽부터. 통신정보기술부 차관보, 김선옥 국제협력관, 다르마자야 정보경영대학 총장,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 람뽕 지역 ‘한-인도네시아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정보접근센터 (Information Access Center (IAC))’는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라운지, 정보화교육장, 세미나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 ICT 복합시설이다. 행사에 참석한 아이지르만 차관보는 두 나라가 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두 번째 정보접근센터를 지원해 준 한국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과 ICT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2013 글로벌 꿈키움캠프 in 인도네시아



KTO- CJ나눔재단 공동으로 2013 글로벌 꿈키움캠프 in 인도네시아를 개최하였다.

17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빈곤 아이들이 비빔밥을 먹고, 한국 부채와 탈을 만들고, 블리즈 메가플렉스(Blitz Megaplex)에서 영화를 보며 현지 직업인들의 생생한 멘토링을 접하는 등 다양한 한류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는 자카르타 내 도시빈민지역인 판중뿌리옥, 무아라카랑, 깔리조도 지역 초등학교생 100여명이 참여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평소 제대로 된 교육과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 17일은 자카르타 선레이크 호텔에 인도네시아 뚜레쥬르의 현지인 파티세를 초빙해서 해당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다. 처음엔 똑같이 생긴 빵이었다가 자신들이 생크림을 바르고 과일과 과자를 얹으면서 각양각색 케이크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달콤한 생크림에 흠뻑 빠져 몰래 찍어먹느라 바쁜 아이도 여럿 보였다. 저녁에는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한국 전통 부채와 탈을 만들기도 했다. 앞서 개회식 때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CSR및 경제통상담당 박영식 공사를 비롯해 신기업한인회장이 참석하였다.

[꿈키움캠프는]

CJ도너스캠프에서 진행하는 미래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적성검사와 진로탐색, 직업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1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캠프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남다른 열정과 소질을 보인 청소년에게는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 장학금, 전문 교육 이수 기회 제공 등 후속 지원도 한다. 올해는 서울·경기·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경남·광주·충남 지역을 거쳐 지난 11월 28~30일 제주 지역 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

CJ도너스캠프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14년 글로벌 꿈키움 캠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업철학에 따라 1988년 인도네시아 진출 이후 2012년까지 약 8억불을 투자했으며 2014년까지 총 27년간 10억불(한화 약 1조530억 원/ 2013.12.13기준)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1988년 파수루안 내 CJ제일제당 바이오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1995년 줌방 바이오공장 추가, 2002년 CJ GLS(현 CJ대한통운) 물류사업 개시 등 초반에는 소재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집중되었다. 향후 우수한 제빵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도네시아 제빵훈련원을 2014년 7월 오픈 목표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설립 중에 있다.





ZEN한국 (회장 김성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한국 세라믹은 2013년 12월 9일 땅그랑 빨렘스미에 위치한 교민 교회(디아스포라 센터) 내에, 신기업 한인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신축 학교 기공식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신기업 한인회장은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에 표본이 꿈나무학교이다” 라며 또 “인도네시아 사회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 달라” 고 당부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인 학생들의 교육 사업에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ZEN한국은 2000년 꿈나무 유치원 과정을 개설한 이래 2005년 꿈나무 초등학교 과정, 2011년 꿈나무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총 250명의 학생들이 35명의 선생님과 함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금번 신축교사는 현재 2동의 건물(대지 5,000m<sup>2</sup>, 건물 3,100m<sup>2</sup>)로 구성된 열악한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위해 지원키로 한 것이며, 본 신축 학교는 50억 루피아를 투입하여, 3층건물에 교실 16개 및 강당과 부대 시설들을 갖춘 현대식 학교로서, 지역 주민 및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인니자총)는 12월17일 찌카랑의 자바베가 골프장에서 2013년도 송년 단합모임을 갖고 한층 긴밀한 유대를 도모했다.

특별히, 이 날 최상관 교수를 모시고 시국 강연회

도 개최하였는데, 2011년 1월에 이어 다시 강연을 맡아주신 최상관 교수의 강연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 하의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마음으로 나라를 사랑 할 것을 더욱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 2013 한-인도네시아 CSR 포럼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김영선)은 18일 자카르타 상그릴라 호텔에서 150여명의 우리 기업인 및 인도네시아 산·관계인사, 양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2013 한-인도네시아 CSR 포럼’을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OCHAM회장 송창근),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카르타 무역관(관장 송유황),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APINDO 회장 Sofian Wanandi), 인도네시아 투자청 (BKMP, 청장 Mahendra Siregar)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대사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사회의 발전을 위한 CSR 활동이 현지에 우리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2011년부터 CSR에 관한 연례 포럼을 개최해 왔다. 첫해에 CSR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저변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2년에는 우리기업의 CSR 활동을 소개하고 KOCHAM과 APINDO 간의 CSR MOU 체결을 통해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금년에는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CSR 활동을 더욱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되었다

김영선 대사는 “치사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송유황 관장은 “우리 기업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우수 사례의 발굴과 공유를 통해 CSR 활동 확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단순 기부형 CSR에서 고부가가치형 CSR 모델

을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KOTRA는 CSR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인도네시아와의 상생협력 등 양국간 우호 협력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총 6개의 기업에 2013년 인도네시아 CSR 우수 기업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산업부 장관상 (CJ 인도네시아), BKPM 청장상 (LG 이노텍), 주인도네시아대사상(아네카 판넬 인도네시아, 롯데쇼핑에비뉴 인도네시아), 코트라 사장상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 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포럼

KDB대우증권은 5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舊 이트레이딩증권)의 사무실을 자카르타 상업금융 중심지 랜드마크 건물인 ‘Equity Tower’ 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섰다.

KDB대우증권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이전식 진행 후 한-인니 양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자본시장포럼’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KDB대우증권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는 이토 와르시토(Ito Warsito)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 및 기관투자자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딩증권의 지분을 80%까지 인수하고, 최근 KDB대우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PT. KDB Daewoo Securities Indonesia)으로 사명 변경을 완료했다.

2007년 이트레이딩증권 지분 19.9%를 최초로 인수한 이후 IT·경영전략·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해, 이트레이딩증권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특히 세전이익은 2012년 50억원 수준으로 출자 전인 2006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시켰다.

향후 KDB대우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현재 강점이 있는 온라인 브로커리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종합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영업, 인도네시아 우량기업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대상 M&A Advisory, 부동산 PF등 다양한 업무영역에 KDB대우증권의 금융 노하우를 접목해 적극 진출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현지의 투자 상품을 발굴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은 “이번 이전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아세안(ASEAN) 자본시장과 연결하는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 중기 지원 세미나



10일 화요일, 대사관은 미래창조과학부, KOTRA와 함께 협력하여 KOTRA 상생협력센터 (GKBI빌딩 12층)에서 인니진출(예정) 벤처중소기업체, 창업 희망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중기 지원 세미나를 가졌다.

INKE, 의료기기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후원으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ICT, 의료기기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산 및 창업희망자 증가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 상황과 정부의 해외 창업, 벤처/중기 지원정책 전파, 실제 벤처/중소기업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함이다.

정부의 벤처/중기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확대, 인도네시아시장 진출사례 및 전략 공유를 통한 창업 촉진 및 성공 가이드, 벤처/중기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맞춤형 정부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김영선 대사는 “창조기업의 핵심주역은 벤처중소기업이다”라며 “코트라와 협력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션 1에서는 정부의 창업, 벤처/중기 지원 정책에 관하여 세션 2에서는 벤처/중기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및 성공 전략에 관한 주제로 김은미 대표 (CEO Suit), PT. 레젤 대표(유국중), PT. 크레온 대표 (김수현), PT. 바텍 대표(윤영균)의 벤처/중기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및 성공 전략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센터는 한국 및 인도네시아의 인재들이 함께 사업기회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내의 진출 희망자, 유학생, 교포 등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2014년 1월말 개최될 예정이며 창업자금을 제외한 비자, 인도네시아어교육, 체재비 등 일체의 솔루션이 제공된다.



# "Diversity Shines Here"

##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강기홍)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자카르타 롯데쇼핑에비뉴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홍보 및 한국관광 홍보를 위한 "KOREA TOURISM WEEK"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와 연계한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행사를 위하여 2013년 비보이 세계대회 'R16' 우승팀인 "모닝오브아울(Morning of Owl)" 과 한국 전통공연 "생활 연주가 김효영 듀오" 가 한국으로부터 초청되어 공연을 펼치게 되며, 인도네시아인들의 K-pop 커버댄스 무대도 함께 펼쳐졌다.

이에 앞서 12월 13일에는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2014 인천아시안게

임 홍보 및 한국관광 설명회인 "Korea Tourism Night" 을 개최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내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45개국 약 13,000명의 선수와 7,000여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금메달 획득을 노리는 배드민턴 종목을 포함하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 권중술지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어 2014년에는 한국이 더욱 주목받는 관광목적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최도시인 인천의 인천대교, 월미도, 강화도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1일 호텔 보로부두르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산업 협력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 국민 방문시 창조산업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문화·콘텐츠 기반의 창조경제 협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양국 공통의 관심과 협력이 기대되는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인니 영화 산업계·전문가 공동 세미나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현황과 영화산업 정책방향 발표 및 공유, 영화제작과 영화제 등 우수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적교류, 공동제작 시장진출 지원 등 협력방안을 토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해외 공동 제작자인 김태식 감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영화관계자, 영화 산업계 자이브엔터테인먼트·블리즈메가플렉스, Jakarta Arts Institute,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등 인도네시아 영화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K-pop·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한류로 각광받은 분야로, 인도네시아는 영화 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고 2억 4천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공동제작 및 우리기업 진출의 폭넓은 협력이 가능하다. 최근 영화 <도둑들>, <Mr. Go>에 이어 현재 <설국열차>, <스파이> 등이 잇따라 개봉되어 한국영화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인도네시아 영화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매년 4-5편의 인도네시아 영화가 국내의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양국 수교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영화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영화 <Hello, Goodbye>는 부산에서 촬영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영화 공동 작업의 대표 사례

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의 개회사,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마리 장관의 keynote speech와 김의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와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김보연 정책연구부장의 양국 영화산업 현황과 진흥정책에 대한 발제에 이어 사회학자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Devie Rahmawati와 Muila.com의 CEO인 Aoura Lovenson Chandra의 패널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양국의 영화산업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공동 제작 사례를 통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 양국 관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세부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CGV와 공동으로 일하고 있는 블리즈메가플렉스와 자이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공동작업 및 제작경험이 많은 한국의 김태식 영화감독, Jakarta Art Institute 등에서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협력 및 발전 방안을 자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pop이나 K-드라마를 넘어 새로운 협력가능성이 높은 ‘영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영화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







# 땅그랑 반튼 안인외 1월 소식



## 진정한 안인 속에서 하나되는 땅그랑 반튼 안인외!!

지난해 땅그랑 반튼 안인외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며 계획하시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땅그랑 반튼 안인외는 2014년 올 한해도 땅그랑 지역 안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역사회와의 권익을 위해서도 열심이 돌아겠습니다.

## 1. 2014년 땅그랑 반튼 안인외 사업계획

### ♥ 장학재단 설립

땅그랑 안인외는 1월부터 땅그랑 지역의 안인 2세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선정대상은 다문화가정중 홀어머니와 살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안인2세를 대상으로 우선지급하고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 ♥ 5월 가정의날 행사, 11월 안인의밤 행사

5월 가정의날 행사는 매년 안인외에서 애은 행사로서 어버이날 행사의 취지를 살리며 이역만리 타국에서 외로운 해외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11월 안인의밤 행사는 땅그랑 지역 안인들이 안자리에 모여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 ♥ 2월, 7월 임원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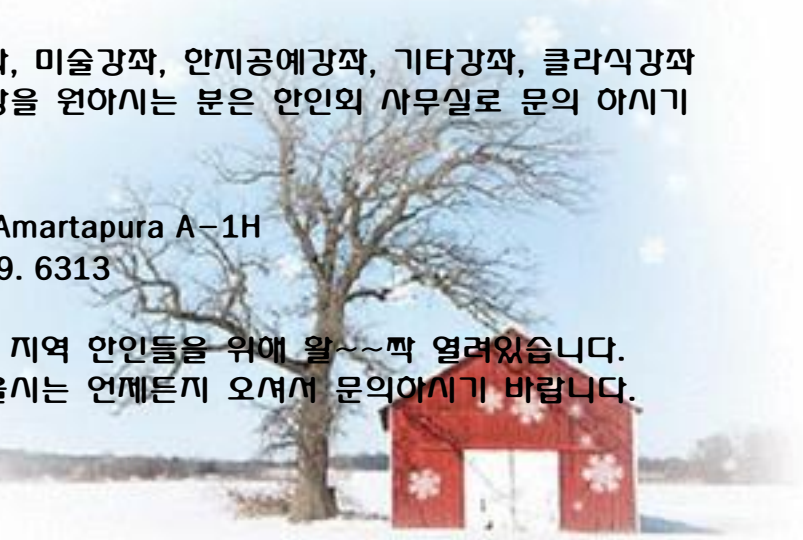
땅그랑 반튼 안인외는 임원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후원금에 대한 보고 및 안인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 ♥ 땅그랑 문화원

땅그랑 문화원에서는 뜨개질강좌, 미술강좌, 안지공예강좌, 기타강좌, 클래식강좌를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고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안인외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안인외 사무실 : Hyundai Amartapura A-1H  
021. 9179. 6313

땅그랑 안인외 사무실은 땅그랑 지역 안인들을 위해 월~~~짝 열려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시는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발리 한인 송년의 밤



장병록 발리한인회회장

발리 한인회는 “ 2013 발리 한인 송년의 밤 “ 행사를 지난 12월 21일 그랜 발리비치 호텔 아궁 벨룸에서 각계인사와 300여명의 교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부 행사는 국민의례, 재인니한국대사관 김영선대사 송년사(대독), 장병록 발리한인 회장 송년사. 발리한인회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년동안 발리 한인회가 이루어낸 업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인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원금 없이 전적으로 한인회비로만 운영하기로 하여, 회비를 낸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한인회에서는 협력업체를 선정 특별계약을 하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받도록 하였다.

\*발리 로얄병원을 발리 한인회 지정병원으로 계약하여 한인회원카드 소지자에게는 로칼 진료비를 적용하고 진료비의 5% 할이, 입원 시는 10% 할인혜택 적용

\*발리 소재 골프장 한인회원 카드 소지자 특별요금 적용.50-70% 할인 혜택

\*발리 소재 협력 업체 레스토랑 한인회원카드 소지자 할인 혜택 ,10-20 %

\*발리 및 자카르타 DFS 면세점 한인회원카드 소지자 10% 할인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모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주었고 이 제도 시행 전 10%에도 못 미치던 회비납부를 지금은 90% 이상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주었습니다.

2.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한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발리 재난국 BMG와 재난 발생시 실시간으로 재난 전파를 받을수 있도록 재난 전파 시스템 구축.

3. 발리를 찾는 관광객을 비롯 한인 사고 발생시 한인

회에 즉각 통보 되도록 발리 경찰청과 핫 라인 운용  
4. 발리 한인회 홈페이지 개설 .각종 민원접수, 발리 관광 홍보 하는데 역할 담당

5. 불우 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 오지학교에 시청각 자료 기증하고, 탁아소와 고아원을 방문하여 쌀과 식품류 기증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6. 발리한국문화회관 건립 추진 준비, 발리 소재 국립 우다야나 대학교에서 무상으로 건립부지 기증을 받기로 하고 금년부터는 건물 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발리한인 모두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2부 행사는 발리 한글학교 초등부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라는 울동을 선보였고 한글학교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기타연주 “고요한밤 거룩한밤”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후 발리 한인교회 성가대에서 “캐롤송 메들리” 가 있었습니다. 찬조 출연팀으로는 발리니스 K-팝 컨테스트 우승팀이 출연하여 K-팝 댄스를 선보였으며, K-팝의 팬인 발리니스가 한국 노래를 불러서 한인 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해동안의 일들을 담소하는 한인들은 한해의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고 다가올 새해를 축복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많은 한인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푸짐한 경품행사가 마련되었다.







## 2013년 스마랑 한인 송년의 밤

스마랑한인회 (회장 유성천)가 연말을 맞아 지역 한인들을 초대 연말 골프대회 및 송년의밤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한인회는 12월 22일 스마랑 곰벨골프장에서 저물어가는 2013년도를 한인들과 함께 보내는 한편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날 행사는 당초 120여명이 참석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같은 생각을 뒤엎고 어린이를 비롯 230여명 인원이 참석해 성공리에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모임에 120여명이 골프대회를 참가 서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한인들이 모두 함께한 노래무대도 마련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특히 이날 한인식당(독도, 고려가든) 두곳에서 정통 한국음식과 다과를 준비 많은 한인들이 한국음식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국 왕복항공권,

삼성 최신형 핸드폰 2대, 삼성 TV 등 행운권추첨도 큰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이날 연말을 맞이하여 신갑성 사장(PT.SAMSAM JAYA)를 비롯 권기호 사장 (PT.SAMWON), 김형주 법인장 (PT.NPK), 최윤행님은 김영선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 한인회 신임 임원 명단

직책	성명	회사명
명예고문	김재유 	The Nissi Group
한인회 수석 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한인회 부회장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한인회 부회장	배응식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한인회 자문위원	송재선 	PT. Putra Hankuk
한인회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한인회 이사	이윤상 	PT. Pakuwon Jati

### 동포 안내문



### 제 목 : 테러정세 관련 신변안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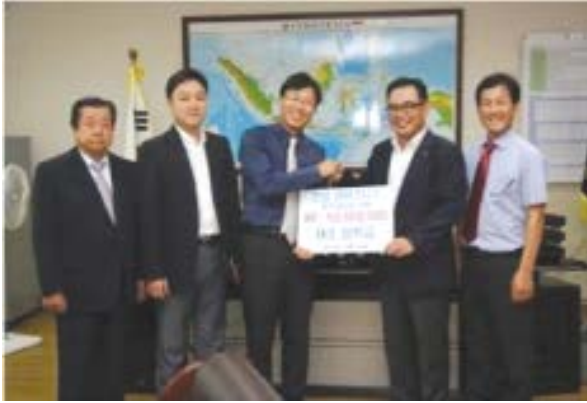
- 연말연시는 들뜬 사회 분위기로 주요 시설의 경계근무가 느슨해지기 쉬워 테러 조직들의 테러감행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실제로 중동 등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테러활동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외국계 유명호텔, 쇼핑몰 등)의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발송인 미상의 소포물 개봉 유의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 한상 영비즈니스, JIKS에 장학금 전달



한상 영비즈니스 김종헌 부회장이 23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 장학금 5천만 루피아를 전달했다.

김 부회장은 JIKS가 한인회 40년 역사와 함께 한 명실상부한 기관이라며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향후 JIKS는 기탁된 장학금을 우수한 인재 양성, 교육시설 확장, 교육 기자재 구입 등 학교 발전 및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예정이다.

## ROTC 인도네시아 지회 JIKS에 발전기금 전달

대한민국 ROTC 인도네시아 지회(회장 김수용)는 12월 7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 2000만 루피아를 기탁하였다.

ROTC 지회는 2013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하면서 조성한 기금 중 일부인 이 금액을 학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전달하였다. 기금 전달은 지난 8월 JIKS에 부임한 김승익 교장이 ROTC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각 개인 및 단체가 학교에 기탁한 발전 기금은 일정액 적립되면 교육시설 확장, 교육기자재 구입 등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 JIKS

## CJ 인도네시아 푸레쥬르, JIKS에 1년간 빵 후원



CJ 인도네시아 푸레쥬르(대표이사 손용)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년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 학생복지 및 학교발전을 위한 용도로 써 달라며 매일 100개씩의 빵을 기증해왔었다.

JIKS는 배달된 빵을 학교 매점을 통해 학생들에게 염가로 판매해서 발생된 수익금 전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해왔으며, 그간 빵 판매를 통해 적립된 발전기금인 총 68,000,000루피아를 초등학생 졸업가운 및 JIKS합창단복 제작과 고등학생 교실의 블라인드 커튼 설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레쥬르는 이 외에도 창의력페스티벌, 그린스쿨 경진대회, 학부모 총회 등 JIKS의 각종 교내 행사 때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빵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 JIKS 초등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대회' 열려

지역 전문가로 걸음마를 시작하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12월 18일 초등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학생들의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본선에 앞서 예선은 인도네시아어를 정규교과로 배우고 있는 3~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암기를 통한 단순한 말하기 기능보다는 인도네시아어 사용 능력 전반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업시간 중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작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년별로 3명씩 총 12명의 우수 작문을 써낸 학생들에게 본선 진출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라홀에서 열린 본선 참가자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경쟁하여 최우수는 이동민(6-3), 우수는 박유나(4-2), 이하정(5-2), 안지영(5-1) 학생이 그 외 8명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으로 4명의 JIKS 인도네시아어 교사와 UI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에서 BIPA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Ibu Sri가 수고해 주었다.

JIKS는 말하기 대회 이외에도 Sarang Kata라는 단어장을 활용한 인도네시아어 단어 경시대회 및 주 1회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인 바틱을 입고 등교하는 바틱데이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까이하며 Glocalization(Global + Local)한 지역전문가의 꿈을 키우도록 격려하고 있다.



## 네 꿈을 펼쳐라!

JIKS 초등 동아리\*ASSP 꿈나무발표회



2013년 12월 20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나라홀에서는 2013학년도 초등 동아리\*ASSP 꿈나무발표회가 열렸다.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 꿈나무발표회는 5,6학년 전체 대상의 동아리활동과 전 학년 희망자들이 참가하는 ASSP(After School Special Program,

방과후활동)의 교육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1~6학년 전 교생과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그 동안 갖고 닦은 재능과 솜씨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학기 어린이회 회장들의 사회로 교장선생님의 영상 축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고 동아리 3개 부서(사물놀이, 마술반, 일본어 기초반)와 ASSP 4개 부서(발레, 플룻, 바이올린, 뮤지컬)가 공연하였다.

골프기초반, 승마반 등 공연할 수 없는 부서는 활동내용을 사진과 영상으로 발표하였다, 나라홀 로비에는 색종이접기, 도자기공예, 다양한 미술체험, 비즈공예, 냅킨공예, 스카우트 문화체험반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꿈나무발표회는 JIKS어린이들의 소질과 특기를 다시 한 번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12월 월간 경제 브리핑



### 인니 공항운영업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막나

양까사뿌라 독점지배막고 서비스질 높여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공항운영 전면 개방 정책을 취소했다.

이로써 공항운영 부문의 외국인투자자는 최대 49% 지분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1월 정부가 개정 발표한 투자네거티브리스트(DNI)에 대한 로컬기업의 극심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16일 마헨드라 시레가르 투자조정청(BKPM)장은 “국내 및 외국계 공항운영기업들과 충분히 논의해 왔으나 국내 투자자는 최대 51%,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49%로 최종 결정됐다”며 “국내기업에게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DNI 개정에서 항공부문과 함께 개방하기로 했던 항만부문에 대해서 그는 “항만부문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대 95%의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결정은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부장관이 연말 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달 항공, 항만 부문 등 인프라부문의 외국인 지분율을 99%까지 확대하며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이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성장둔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국내언론 및 기업에 의해 큰 질타를 받았다.

현재 자카르타 주가 운영하는 양까사뿌라와 빨린도는 독점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으로 인한 경쟁부재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부 밤방 브로조네고로 차관은 “항공업에 있어 국내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독점을 막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년 샤리아은행의 총자산 20% 성장기대

新 규제 도입예정... 母은행 일반 점포 활용  
방안 포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내년 샤리아 은행계의 총 자산규모가 금년대비 약 20% 성장한 283조 5천 7백억 루피아(미화 2347억 2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샤리아 은행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 17일자에 따르면, BI가 주최한 샤리아 은행에 관한 세미나에서 아구스 BI 총재는 내년 말에는 샤리아 은행 자산 규모는 국내 총 은행 자산의 최소 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샤리아 은행의 자산규모는 국내 은행 거래 자산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아구스 총재는 “샤리아은행은 현재 자기자본비율(CAR : Capital adequacy ratio)은 14.19% 그리고 부실여신(non-performing financing) 비율은 2.96%로 최근의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샤리아 금융부문의 경영 성과가 그런대로 잘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의 내년도 샤리아금융업 발전을 위한 3가지 예상작성안을 보면 샤리아 은행 성장률이 7.4%일 경우 ‘비관적’, 19.4% ‘적정수준’, 31.3%는 ‘낙관적’이라고 구조를 설정했다.

BI 샤리아 은행업 담당임원 에디 스네티아디 전무는 “BI는 국내 일반은행으로부터 메카순례자금을 샤리아 은행으로 이관함을 가정하여 ‘적정수준’의 성장을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발동동' 인도네시아에 손내민 재빠른 일본

중앙은행, 일본과 외환스왑달 227억 달러 체결

지난 8월말로 만기가 된 일본과 인도네시아간 120억 달러 규모의 스왑라인 연장에 이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 10일 227억달러 스왑달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11일에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자카르타-수라바야 구간 신칸센 건설을 위해 60~70조 루피아 자금을 증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시아 위기국들에게 돈으로 환심을 사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 측은 국제 준비통화로서의 엔화가 갖는 막강한 지위로 위기국들에게 선심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생각보다 매우 끈끈하다.

인도네시아를 돕는 것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아시아 역내 위상을 강화하고 중국을 긴장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배후에 존재한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14일자에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정책의 단계적 시행에 앞서 대규모 자금유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맺은 이번 협정을 통해 BI가 외환보유고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BI는 그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도 각각 100억달러와 15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BI는 또한 일본정부 국채매매 협정과와 환매조건부채권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유동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루피아화 가치는 올해들어 15%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계획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피 조한샤 BI 대변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는 지난 7월 9270만 달러에서 지난 11월 말 97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 인니 경제 안정화 위해 루피아화 하락세 불가피

모건스탠리 "비상품부문 경쟁력 강화 위해  
선 루피아화 약세도 필요"

경제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불균형 해결을 위해 루피아화 약세 용인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루피아화 가치하락이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년 중 루피아화가 대미달러대비 24% 이상 하락세를 보임에도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1달러당 루피아화가 네 자리 수에서 다섯 자리수인 10,000선 돌파해 11,000선에 이어 12,000선에 다다르기까지 세 번의 심리적 고비가 있었음에도 시장반응은 루피아화 급락의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금년 3분기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는 이전분기 98억달러에서 GDP의 3.8%에 해당하는 84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금년 10월에는 예상치 못한 4,240만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금년 4분기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구스 BI총재는 "환율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충격흡수망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12,000선인 루피아화 환율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결코 나쁘지만은 않으나, 루피아화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경제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그자 아딧야스와라 BI 수석 부총재는 "최근 루피아화 약세가 아직 인내할 수 있는 선이지만 어떠한 요인으로 극한으로 치솟을 경우 분명 위험할 수 있다"며 아구스 총재의 의견에 동조했다.

반면, BI측과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은 경제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루피아화 약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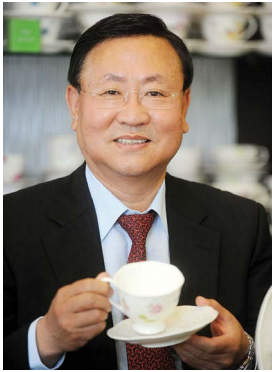
한편 세계은행 측은 2014년 인도네시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미가공 금속 광물 수출 금지가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결국 내수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낮은 루피아화 가치를 적극 활용해 수출촉진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PT. Hankook Ceramic (ZEN한국 인도네시아 공장)을 찾아



팡그랑 공장 전경



김성수 회장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는 PT. Hankook Ceramic을 한국에 있는 한국도자기의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4남인 김성수 회장이 2004년 한국도자기에서 분리하여

인수한 ZEN한국의 공장이다.

김성수 회장은 1970년 한국도자기 연구실에 사원으로 입사, 한국도자기를 일류기업으로 발전시켜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한 후 동사를 나와 ZEN한국을 설립하였다.

가업의 대를 잇기 위해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는 본차이나를 국산화 시키고,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초강자기 슈퍼스트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역으로 43년간 도자기 외길을 걸어온 한국 도자기 업계의 산 증인이다.

도자기 산업이 발달한 영국과 일본으로 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은 김회장은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도자기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3년전인 1991년 팡그랑에 공장을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ZEN한국의 품질력은 해외에서 더욱 인정 받고 있다. 미국의 레녹스, 독일의 빌레로이엔보흐, 일본의 노리다게, 영국의 막스앤스펜서 등 40여개 명

품 브랜드를 생산하는 ZEN한국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1,500명의 직원이 연간 2천만 pcs를 생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김회장은 향후 OEM방식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자체 브랜드인 ZEN 과 St.James 브랜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자체 브랜드 강화와 수익성 제고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체 브랜드 강화 노력으로, 최근 영국의 디자이너 레이첼바커와 협업해 ‘메도우 플라워’, ‘잉글리시 가든’ 등 고급 도자기 제품을 선보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 도곡동, 청주 등에 5개의 직영 매장과,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에 35개의 매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롯데 백화점, 뽀독인다몰, 리본끄망몰에 3개의 직영매장과 자카르타 등 8개의 대리점과 딜러들이 활발히 영업중에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운 ZEN한국의 우수성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 후발 주자이지만 단시일 내에 도자기



서울 사옥



롯데 매장

3강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역시 Hankook Ceramic의 St.James는 고급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ZEN한국의 김회장은 R&D 투자에 매출액의 15%를 투자할 정도로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구 개발 인원이 150명으로 타 도자기 회사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인력이다. 이러한 투자는 ZEN한국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 신기술 혁신상을 4년 연속 수상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ZEN&Lock 생생 밀폐 김치 용기, 도시락 용기, 반찬용기 뿐 아니라 최근에 개발한 세라믹 내열냄비 ZEN COOK 등은 타 도자기 메이커가 생산할 수 없는 ZEN한국만의 신기술 제품이다.

ZEN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남달라, 땅그랑군 빨렘스미 지역에 인도네시아인과 한인들을 위하여 꿈나무 학교 (대지 5,000㎡, 건물 3,100㎡)를 건립하여 지원 중인 바, 2000년 꿈나무 유치원 과정을 개설한 이래 2005년 꿈나무 초등학교 과정 2011년 꿈나무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35명의 선생님 밑에서 2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지역민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금년 12월에는 현재 2동의 건물로 구성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50억 루피아를 지원하여 3층 건

물에 16개 교실 및 강당과 부대시설을 갖춘 현대식 교사 신축 기공식을 가진바 있다.

아울러 ZEN한국은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2012년 우이(UI)대학 중앙도서관 내에 한-인니 문화 코너를 개설하고, 금년에는 마카사르에 있는 하사누딘(Hasanudin) 대학교에도 한-인니 문화 코너를 개설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젊은 청년층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 서고 있다.



UI 한국문화원  
개원식



꿈나무학교 신축 기공식



# 말(午)

말(午)은 12지의 일곱 번째 동물로서 경오(庚午), 임오(壬午), 갑오(甲午), 병오(丙午), 무오(戊午) 등으로 순행하며, 시각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방향으로는 정남(正南), 달로는 음력 5월에 해당한다.

말의 이미지(image)는 박력과 생동감으로 수렴된다. 외모로 보아 말은 싱싱한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탄력있는 근육, 미끈하고 탄탄한 체형, 기름진 모발,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를 가지고 있어 강인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말은 고대로 원시미술, 고분미술, 토기, 토우, 벽화 등에서 나타나고, 구전되는 이야기(신화, 전설, 민담, 속담, 시가), 민속신앙, 민속놀이 등 민속문화 전반에서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어, 말은 일찍부터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신라와 가야의 마각(馬刻), 마형(馬形), 기마형(騎馬形)의 고분유물과 고구려 고분벽화의 각종 말그림에서는 말이 이승(지상계)과 저승(하늘)을 잇는 영매체로써 피장자와 영혼이 타고 저 세상으로 가는 동물로 이해된다. 말이 그려진 토기, 토우, 천마도는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다를지 몰라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장과 사상은 다 같은 것이다. 즉, 피장자로 하여금 말을 타고 저 세상(하늘, 명계)으로 가도록 드리는 공헌적 부장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말은 모두 신령스러운 동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와왕, 혁거세, 주몽 등 국조(國祖)가 탄생할 때에 서상(瑞相)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든가, 백제가 망할 때 말이 나타나 흉조를 예시하여 주는 것이라든가 모두 신이한 존재로 등장되고 있다.

혁거세 신화와 천마도의 백마는 최고 지위인 조상신이 타는 말로 인식되었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고대 소설, 시조, 민요 등에서는 신랑, 소년, 애인, 선구자, 장수 등이 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시풍속에서는 말을 여섯 가축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월 상오일, 10월 말날에 특별히 말을 위해 제물을 차리고 고사를 지냈다.

오늘날까지도 일부 지역의 동제당에 마상이나 마도가 모셔지고 있다. 동제 신당에 봉안된 말은 마을의 수호신인 동신의 신격이 타고 다니는 경우, 호환과 관련되어 호환을 퇴치하기 위해서 봉안된 경우, 술공장이나 용기공장이 잘 되도록 기원하기 위해 제물로 봉안되는 경우, 말에 대한 숭배관념에서 봉안되는 경우 등이 있다.

민속유희에서도 말이 등장하는데 격구, 마상제, 약마회가 대표적인 놀이이다. 일상생활에서 말의 이용은 단순히 실용 혹은 수렵 및 간단한 경제적 단계에서 정복과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이용단계로 발전하였다.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에는 농경, 수공업의 원료 운마 교통, 통신의 역마 등으로 다양했다. 근자에는 제주도 일부와 민속촌 관광지와 경마장을 제외하고는 말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말의 이미지를 투영한 기업이나 상품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도 말의 상징적 의미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표현하는 기법에서는 시대에 따라 달리했지만 말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 고국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

시 : 서미숙 / 그림 : 이태복

인천발 자카르타행  
금속날개를 단 거대한 물체는 매일매일  
구름 위를 날아서 바람을 헤치고  
고국을 실어 나른다.

하늘과 땅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싹을 틔우는 꽃잎처럼  
무수히 서성이던 세월 사이로  
툭 터져 나온 그리움  
우르르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표정에선  
따사로운 고향의 숨결이 새어 나온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근심과 분노에 찬 고국의 얼굴이 있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태극기가 솟아오를 때  
가슴 뭉클한 표정이 환하게 달려 나온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이토록 가슴 뭉클한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타국의 공항에서 벅차게 끌어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저마다 고향을 들고 나오는 얼굴 위엔  
눈부심으로 빛나는 세계 속의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있다.

잘 익은 고향의 햇살을 가득 싣고 온 사람들로  
공항은 분주하고  
고국을 마중 나온 사람들은  
바로 도착한 순백한 향기의 추억을  
한 사발 들이 마신다.

서미숙 약력

1992년 한국/싱가포르 수교기념 문학공모전 대상  
한국 서정문학 신인문학상 수필부문 등단  
동남아신문 <싱가포르 한나프레스> 신춘문에 최우수상  
2010년 서정문학 수필분과위원장, 서정기차단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수필가협회회원  
수필집 : 추억으로의 여행, 공저 > 한국대표서정시선외 다수





##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특급 조언

“노후의 5대 적 창업.사기.건강.부부.자식 조심하라”



수명은 길어지는데 퇴직은 빨라진다. 인생 1막은 부모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었다면  
인생 2막은 노후 준비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퇴설계 전문가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이 들려주는 행복한 노후 준비법.

자산을 파악했다면 그다음 단계로 은퇴 후에 월 생활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에 맞춰 부족한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한다. 그는 특히 최근 하우스 푸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0~40대도 지금 부동산 투자를 재편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형 아파트를 깔고 앉아 정작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동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취득세 감면과 함께 이제는 적체돼 있던 매물들이 다소 빠지고 있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금 시점을 평수를 줄이거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아탈 타이밍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실제 김 소장은 은퇴자산 리모델링 사례를 들려줬다. 현재 건설회사 중역으로 재직 중인 이민우(61) 씨의 자산은 거주 중인 대형 아파트에 금융 자산 1억5천만원과 퇴직금 3억원이었다. 월 생활비는 5백50만원으로 예상됐다. 대형 아파트에 계속 산다면 이씨는 70세가 되는 9년 후 4억5천만원의 금융자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에 처한다. 김 소장은 이 경우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갈아탄 후 생긴 목돈을 금융자산 투자로 전환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금

용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중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브라질채권, 지수형 ELS, 은퇴신탁에 가입하면 연 5~6% 정도의 투자수익률을 올려 필요로 하는 은퇴 후 생활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 혹자 은퇴를 위한 포트폴리오

2009년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75% 정도.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은퇴자산은 국민연금 42%,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면 연금이 70%를 차지한다고 나왔다. 나머지 25%는 예금이나 적금, 퇴직금 등 은행에 넣어둔 돈이고 5%는 부동산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했다. 이런 자산 준비에 대해 김 소장은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연금이 노후 준비의 기본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또 예금이나 저축은 돼지저금통에 돈을 넣어두는 것 정도밖에 의미가 없죠.”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서 김 소장이 추천하는 단계별 전략은 크게 기본이 되는 연금과 중위험·중수익 상품 그리고 절세상품과 장기 투자로 요약할 수 있다.

1단계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최저 은퇴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1인당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단계 상장지수펀드(ETF)같이 여러 가지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수익

은 높이는 것이다. ETF는 주가지수, 금, 원유 등 다양하게 나와 있어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3단계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때 현재의 자산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현금으로 투자금을 늘릴 수 있다면 좀 더 은퇴자산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조언이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은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하는 상품들로 ELS(주식연계증권), ETF, 채권, 자산배분펀드 등을 주로 신탁이나 랩을 구성해 패키지로 운영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고 한다. 기대수익률은 연 6~9% 정도. 단 이런 상품을 고를 때는 제시하는 수익률은 보장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운용회사의 장기적인 안목과 능력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4단계 월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월지급식은 처음에 거치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자산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한 목돈을 투자해보는 방식을 고려해볼 것을 권한다. 월지급식이 은퇴자산 마련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0~40대는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지급식에서 매월 나오는 금액만큼 ELS나 해외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월지급식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높게 제시한다고 해서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원금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반드시 원금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 지금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 TIP

#### 은퇴설계는 5년 단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투자자산을 최소 5년 단위로 나눠 투자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투자자산과 은퇴자산 계좌를 분리하라

내 집 마련, 학자금 등의 투자금과 연금 등 은퇴를 위한 자금 계좌를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을 얼마나 모으고 있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목표로 하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재편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

#### 금융사에서 은퇴설계를 무료로 받아라

투자만이 은퇴설계를 받는다는 편견은 버려라. 현재의 재산과 소득과 지출 그리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필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임할 수 있다.





## “오해하지 마세요.. 다를 뿐입니다”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어디 가세요?(Mau ke mana?)” 얼굴을 아는 정도인 현지인이 로비에서 만나기만 하면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아내는 미소로 응대했지만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길가다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슬라맛 빠기(아침인사)”라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Mau ke mana?” “Kok, jarang kelihatan?(요새 통 얼굴 보기 힘드네요?)”라고 묻는 게 인도네시아식 에티켓(바사바시, basa-basi)이다. 이때는 “Jalan-jalan saja(산책하고 있어)” 또는 “Tidak ke mana mana(아무 데도 안 갔어요)”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해도 괜찮다. 바사바시는 에티켓, 일상적으로 큰 뜻 없이 하는 인사말 또는 상투적인 표현 행위 등의 뜻을 갖고 있다. 바사바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어색함을 누그러뜨리고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한국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여하

는 것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최근 일간지 꿈빠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에서 교환교수로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대학교(UI) 인문대학 소속 마만 S 마하야나 교수가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충격’에 관한 기사문을 게재했다.

2009년 이 학교에서 강의를 막 시작한 마만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얘기도 없이 교실을 나가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수업방식이 맘에 안 들었는지? 고민했다.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마만 교수는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웠지만 오래지 않아 한국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취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았다. 이후 마만 교수는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인 ‘

가족적인 방식(kekeluargaan)’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아내가 준비한 인도네시아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마만 교수는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 상하관계와 위계질서 등이 남아있어 스승과 제자간에 친밀감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인 반면, △효도 △사회질서 △어려운 이웃 돌보기 △근면 △단결심 등은 배울 점으로 꼽았다.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황당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아버지와 맞담배 피우는 아들’이다. 이곳에서는 담배에 대해서 관대함으로 담배를 피울 때 동석한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화가 났을 때 조차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는 자바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해야 속이 후련한 한국인들은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서류를 던지며 화를 내기도 하고 공장장이 작업자에게 검지를 뺏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질러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맞을 수도 있는 행동이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회사에서 한국인 상사가 바닥에 놓인 물건을 발로 차면서 치우지 않았다고 인도네시아 직원에게 화를 낸 일로 근로자들이 분노해 파업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한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된 지인이 자신의 연구실을 찾아온 온 학생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을 보고 ‘건방지네’라고 생각했다가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서야 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실례는 많은 한인들이 경험한 문화충격 가운데 하나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행동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간이동을 하면서 오해와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며 왼손이나 발로 가리키는 것은 상대를 심하게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왼손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인

도네시아인들은 검지로 방향을 가리킬 경우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인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후 엄지만 펴서 서류를 가리키는 인도네시아인을 보면서 장난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에 ‘충청도 양반’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끄자웬(Kejawen)’이 있다. ‘끄자웬’은 자바의 규범과 관습 그 자체 또는 이를 고수하는 사람을 뜻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바른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동시에 음흉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 있다. 자바사람들은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화를 내지 않고 시종일관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작은 소리로 공손하게 말하며 ‘아니오’라는 말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바인들과 대화할 때 ‘야’(ya, Iya)가 진짜 ‘예’인지 ‘아니오’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상황이나 표정을 살펴야 하고,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다른 종족이나 외국인들은 자바인을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캐시드레인 & 바버라 홀 공저, 박영원 옮김, 휘슬러)’에서 인용한 인도네시아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 해도 되는 것

\* 인도네시아어로 ‘고맙습니다’는 ‘뜨리마카시’이다. 사양하는 의미도 있다. 애매한 경우에 미소로 대신하는 것이 좋다.

\*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디서나 목욕을 즐긴다. 미리 목욕도구를 챙기고 욕조 사용법을 알아두도록 한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녀에게도 미리 말해두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잘 웃는다. 당신도 같이 웃어주라!

\* 선물주기는 일반적인 관습이다. 식사나 행사에 초대받았다면 안주인이나 가사도우미에게 음식이나 꽃을 선물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물을 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아이들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다. 아이들을 칭찬하면 부모가 무척 좋아한다. 자신의 자녀도 이곳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칭찬은 진심이므로 흔쾌히 받아들여라.

\* 상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발음해준다. 상대의 이름을 다시 물어봐도 큰 실례가 되지 않는다. 친목 모임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손님의 이름을 물어봐도 무방하다

\* 존경 받는 손님의 자리로 안내하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다.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 안 된다.

#### ◆ 해서는 안 되는 것

\* 사람은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모욕감을 느낀다. 꼭 손으로 가리켜야 한다면 엄지손가락을 이용한다.

\* 이슬람교 신도는 돼지고기, 발리의 힌두교 신도는 소고기가 금기식품이다. 손님을 초대할 때는 상대의 종교를 살펴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 고함은 위험에 처했거나 개, 아이들에게만 통용된다. 중요한 이야기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나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큰 소리에 모욕감을 느끼며, 고요함을 진지함과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 머리, 특히 어린아이의 머리는 신성하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머리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금기다.

\* 사물을 발로 가리키면 안 되며, 발을 식탁이나 책상 위에 올려서도 안 된다. 실내에서는 맨발도 가능하다.

\* 탈의실이나 공동 목욕탕에서 알몸을 드러내면 안 된다.

\* 화를 드러내지 말라.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화난 몸짓을 보이거나, 분노를 드러내는 일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한 행위로, 이들에게 경멸 당할 수도 있다.

\*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면 강도를 낮추어 부드럽게 지적한다. 개인을 직접 비난하면 안 된다. 또한 공개된 장소나 다른 사람 앞에서도 안 된다.

\* 공공장소에서는 이성 간의 애정표현을 삼간다.

\* 음식을 전해주거나 받을 때, 손님을 접대할 때 왼손을 쓰면 안 된다. 아랫사람은 몸을 웅크리거나 절하는 태도로 물건을 건네주기도 한다.



Ancol 거리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배짱 아저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것에 소망을 담아 귀하게 여기는 소박함이  
보는 이의 마음마저 한참을 머물게 합니다.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 ■ ■ CNN이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 할 곳 50

### 35. 여주 신륵사

강가에 위치한 신륵사는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사찰이지만 다양한 석탑과 중, 그리고 느티나무들로 다른 사찰에서 찾을 수 없는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매년 1월이면 사찰과 주변 지역에 고구마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 >>



### 36. 대둔산 구름다리

대둔산의 묘미는 가을이면 색색깔로 변신하는 나무들과 81미터의 금강 구름다리이다. 임금바위와 임석대를 잇는 금강다리는 등산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어 등산을 힘들어하는 등산객들도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다.

<<전북 완주군, 충남 금산군

### 37.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이지만 여름만 방문하면 아까운 곳이기도 하다. 매년 1월 북극곰축제가 열리며 여기서 방문객들은 추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겨울을 만끽하곤 한다.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중동 >>





### 38. 옥천 용암사

552년에 지어진 이 사찰은 근처에 있던 용모양의 바위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파괴되었고 결국에는 사라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신라의 마지막 왕자가 신라가 무너지기 전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곳이다. 가을 아침에 둘러보면 사찰은 구름과 안개로 둘러싸여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니 새벽에 일어나 꼭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 39. 태백산 설경

강원도는 아름다운 설경과 눈으로 유명한 곳. 그래서 강원도까지 운전해서 가는 것이 힘들긴하지만 일단 도착하면 최고의 스키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하이원은 가장 높은 스키장으로 유명하며 훌륭한 설질로도 인기가 많은 곳. 매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는 태백산 눈 축제가 열리며 썰매, 스키, 눈슬라이드 그리고 눈싸움도 마련되어 있다.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 40. 양동 한옥마을

조선시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양동마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조금씩 더 알려지기 시작했고 찰스 왕세자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면서 한국인들의 관심도 커지기 시작한 곳이다. 일단 마을에 들어서기만 해도 조선시대의 분위기와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마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 코코넛 나무 | (Coconut palm)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일반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Kelapa), 필리핀 (Niyog), 태국 (Ma-phrao on)

과 명: 야자나무과 (Family: Arecaceae)

학 명: *Cocos nucifera* L.

기원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추정

분 포: 전 세계 80여 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

이 용: 생과일, 주스, 코코넛 밀크, 코코넛 오일, 화장품 원료 등 무수히 많음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능성은 낮지만, 인도네시아 여행 중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당신 손에는 아무런 도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구출될지 아무 기약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절망하긴 어렵습니다. 그 섬에 코코넛 나무가 즐비하게 있다면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코코넛 나무만 잘 알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양식은 물론 은신처를 만들 수 있고 그 섬을 성공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열대 식물 중에 코코넛 나무처럼 활용도가 높은 식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코넛 나무는 식물의 전체 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위대한 선물’ (Nature’s

greatest gift to Man), ‘천국의 나무’ (Tree of Heaven), ‘천 가지 활용의 나무’ (pokok seribu guna: the tree of a thousand uses)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대지방에서 중요한 경제 식물로써 코코넛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 코코넛 나무의 생김새

높이 30m 이상으로 높이 자라는 교목성 야자나무입니다. 줄기는 지름이 20~40cm이고 잎자국이 줄기 전체에 남아있습니다. 거대한 깃 모양의 잎은 줄기 끝에 모여 나며 성숙한 잎은 길이가 4~6m 이릅니다. 잎의 줄기를 따라 작은 잎들이 100쌍 이상 달리는데 모양은 가늘고 긴 모양이고 길이는 1m 정도입니다.

열매는 원형이나 삼각형 모양이고 지름이



15~30cm입니다.

코코넛은 복숭아와 같은 열매구조로 핵과의 과실에 속합니다. 복숭아의 털이 있는 껍질과 먹는 과육부분이 코코넛의 두꺼운 섬유층 껍질에 해당하고, 복숭아의 딱딱한 씨에 해당하는 부분이 둥그랗고 양쪽 끝이 뾰족한 코코넛 씨앗(Coconut shell)에 해당합니다. 코코넛 씨앗은 어른 두 주먹을 합친 크기 정도 됩니다. 코코넛을 과일로 먹을 경우에 우리는 복숭아의 씨껍질 안에 있는 종자를 먹는 셈입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코코넛은 섬유상 껍질과 내부의 딱딱한 씨앗 껍질이 붙어있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여 분리된 씨앗은 외부가 갈색으로 여분의 섬유질이 붙어있고, 잎자루가 붙는 부분에 3개의 검은 반점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껍질이 얇아 나중에 새싹이 자라나는 구멍이 됩니다. 3개의 검은 반점이 마치 도깨비 (원숭이 얼굴을 닮았다 하는 설도 있음) 같다 하여 도깨비를 뜻하는 'coco' 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코코넛 물(Coconut water), 코코넛 미트(Coconut meat), 코코넛 밀크(Coconut milk)

코코넛 씨앗 안쪽에는 일정한 두께로 고형화된 흰색 밀크 층(코코넛 미트)이 덮고 있고 내부의 공간에는 코코넛 물이라는 액체가 차 있습니다. 우리가 코코넛을 과일로 이용할 때 흰색 밀크 층과 중심부에 차있는 코코넛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성숙 중인 코코넛의 밀크 층은 젤리 모양으로 부드럽고 얇으며 반 투명성이나 완전히 성숙한 코코넛 미트는 두껍고 딱딱해집니다. 코코넛 미트를 갈아서 케이크나 과자의 토핑으로 먹기도 합니다. 코코넛 미트를 갈아서 물과 함께 짜낸 것을 코코넛 밀크라고 부르는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음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식 재료로 쓰입니다. 특히 태국은 물 대신 코코넛 밀크로 음식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 야자나무 꽃

야자나무의 꽃(꽃차례)은 야자나무 줄기 끝의 잎겨드랑이에서 발달하는데 깃꼴로 갈라지며 길이가 1m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망가르(mangga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꽃차례에서 수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 알코올성 음료와 식초 그리고 굴라 자와(gula jawa)의 원천이 됩니

다. 꽃차례를 아래로 향하게 한 뒤 칼로 상처를 내면 단물(진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정량 받아낸 진액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거나 자연상태에서 발효시켜 식초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굴라 자와는 흑설탕(Brown sugar)의 일종으로 '자바의 설탕'으로 직역되며 단물을 모아 넓은 냄비에서 여러 시간 끓이고 졸여서 응고시킨 것입니다.

### 의약적 이용 및 잠재가치 연구

의약적인 사용은 지역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예를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전통적으로 해독제로서의 예가 가장 많으며 그 지역의 여러 약초와 함께 배합하여 다양한 증상의 치료에 사용하였습니다. 붓기, 열병, 두통, 황달, 요통 등에 민간에서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코넛 씨앗 껍질은 살충작용과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코코넛 미트는 변비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코코넛 오일은 미용 재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인도네시아 민간에선 산모가 코코넛 오일을 많이 섭취하면 순산에 도움이 된다 하여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Cast Away' 를 보면 코코넛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도착한 톰 행크스가 허기와 갈증을 채우기 위해 코코넛을 돌덩이로 내려치지만 하도 단단해서 돌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후에는 코코넛만 너무 과식한 나머지 설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코코넛 섬유로 불을 지피고 코코넛 잎을 엮어 만든 움막에서 생활하며 나중에 섬을 탈출할 땐 코코넛으로 만든 물통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코코넛을 어떻게 깨뜨릴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 계속)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인도네시아 직물의 대명사는 바틱(Batik)이다. 흔히 바틱을 ‘자바의 영혼’ 이라고 한다. 그만큼 자바인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섬유 중에서도 바틱은 대중들에게 쉽게 문화와 천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해 준다. 바틱은 고대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 도입(導入)되어 인도에서 승화된 무명예술로 인도네시아 자바에 이르러 그 꽃을 피운다. 그래서 바틱하면 질이나 완성도가 가장 우수한 자바를 먼저 떠올린다. 바틱의 어원은 미낭까바우(서부 수마트라 종족)어의 ‘점을 그린다.’ 라는 말에서 왔듯이 촛농을 옷감 위에 적절히 연결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낸다. 바틱은 손놀림이 섬세하고 정교해야 하며 한없이 느린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한 이 느린 시간의 아름다움을 통해 모두가 예술가가 되고 철학자가 된다. 우리는 Batik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더욱 넓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박물관의 주 전시관 오른쪽에 있는 바틱 갤러리관은 우아한 고대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도네시

아 전 지역에서 가져온 바틱을 전시하고 있다. 바틱이 2009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은 1년 후, 즉 2010년 10월 2일에 Yayasan Batik Indonesia와 협력하여 문화 관광부 장관인 제로 와직(Jero Wacik)이 바틱 갤러리 관을 보수하여 재준공식을 올리면서 10월 2일은 ‘바틱의 날’ 로 정해졌다. 참고로 2000년 11월 21일 바틱 갤러리 관 준공식 때 전통직물애호가협회(WASTRAPREMA), Yayasan Mitra Museum





Indonesia와 협력하여 바틱 디자이너 이완 띠르타(Iwan Tirta, 2010년 별세)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건물은 19세기에 프랑스인이 프랑스 스타일로 건축하였다. 후에 터키인, 아랍 상인 등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이 건물에서 아랍 상인들은 회의나 모임을 가졌고, 그 중 몇몇 상인들은 성공하여 지금의 Textile Museum인 큰 가옥을 사기도 했다. 1942년에는 독립을 위한 국민안전기구(BKR)의 사령부로 사용되었고, 1947년에는 Lie Sion Pin의 개인 소유가 되었다. 1952년에 사회복지부에서 이 건물을 인수했고, 1975년에는 자카르타 시에서 사용했다. 그즈음 현대직물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직물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전통직물애호가협회와 당시 산업부의 직물 부장인 사피운(Safioen)이 인도네시아 전통직물을 보존하자는 운동을 펼쳤고 알리 사디킨시장이 적극 협조해 주었다. 마침내 1976년 영부인 띠엔수하르토(Tien Soeharto)에 의해, 직물 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된다. 직물박물관은 문화적인 유산도 늘려가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별 섬유 예술의 특성과 섬유와 관련된 특징적인 문화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소장품은 처음에 전통직물애호가협회에서 500점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차차 각계각층에서 기부하였다. 소장품으로는 바틱과 수직물(Ikat), 특수하게 묶어서 염색(tie-dye)한 직물, 전통적으로 짠 직물(tenun) 의상, 직물 장비(전통 베틀) 등, 총 1980점에 도달한다. 주 건물에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직물들을 전시한다. 소장품은 3개월에 한번 교체된다. 한 점 가감 없이 오



랜 세월 전해 내려온 전통의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문양이 어우러져 문화의 깊이를 더해준다. 보존되어 있는 직물들은 18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만 대부분 20세기 직물이다. 그 중엔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문양도 있다. 디자인은 오래된 오리지널 그대로인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는데, 바틱과 수직물 문양의 주된 소재로 가루다, 뱀 혹은 뱀 껍질, 꽃을 상징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하다. 여러 지방의 이깃이 전시되어 있는데 누사뎡가라(Nusa Tenggara) 지방의 Ikat(이깃)이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이깃은 신분이 높은 여성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무늬 직물로, 옷이나 이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작은 것은 손님이 오면 환영의 뜻으로 어깨에 걸쳐 주었다고 한다. 무늬에 따라서 장례식에 입고 가기도 하고 결혼식 예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과 교역이 많았던 숭바섬의 이깃에는 왕을 상징하는 악어, 장수를 상징하는 뱀, 전사에 비유되는 개, 생명을 나타내는 용을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Ikat은 인도네시아어로 '잇다'라는 뜻이다. 야자나무 잎을 디자인에 어울리게 목면 날실에 천연 염료를 물들인다. 그리고 나면 이음새 부분이 하얗게 남아 모양이 생긴다. 건조시킨 후에 또 다른 색으로 물들이는 과정을 반복한다. 여러 가지 색으로 된 날실



에 예부터 사용해오던 직물 기계를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씨실을 짜는 매우 복잡한 과정과 많은 시간을 공들여 이깎은 만들어진다. 수마트라 지역의 수직물 종류인 송켓(Songket)은 화려하고 금박이 많이 들어갔다. 이깎과는 반대로 한 가지 색깔의 날실을 직물 기계에 걸고 여러가지 색깔의 씨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만든다. 특히 애정이 가는 전시품은 천연 대나무 섬유로 만든 원피스와 등나무 섬유로 치밀하게 만든 갑옷과 방패, 조끼이다. 이러한 천연 섬유는 인간에게 친숙하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어 다시 돌아보게 된다. 솔라웨시에서 온, 나무껍질에 천연염료로 염색한 Kunfe에서 자연의 향기도 맡을 수 있다.

문화유산이기도 한 직물박물관은 넓이가 2헥타르로 다음과 같은 시설도 갖추고 있다. 중부 자바의 전통 가옥인 조글로(Joglo) 스타일로 만들어진 pendopo에서 바틱과 tie-dyeing 실습을 코스별로 할 수 있다. 주 전시관 뒤에 넓이가 2000m<sup>2</sup>인 정원에 천연염료로 사용할 나무와 식물들을 기르고 있다. 원래 전통직물의 염료는 흙이나 초목에서 만들어내는 천연염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마호니나무 껍질로는 갈색을, 낭까나무에서는 노란색을, 망가의 잎사귀로는 초록색, 자띠나무로는 붉은색을 낸다. 전통직물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직물 보존 연구소와 도서관에 들리면 된다. 섬유 예술에 관한 역사적 자료·사진 자료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직물의 역사에 대한 다큐 영화를 상영하는 강당도 있다. 바틱 갤러리 뒤에 있는 기도실은 잘 자란 나무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도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장식품이나 천, 바틱 의상, 직물에 대한 책을 사려면 기념품 가게에 들려 보자. 이 박물관에서 섬유와 관련된 수많은 전시회가 열렸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

제 섬유 미술 교류전이 열리기도 했다.



바틱 갤러리관 앞에는 이 건물과 역사를 같이하는 200여년 된 나무가 있다. 마음껏 푸르르고 마음껏 시들었던 그 나무처럼 전시된 바틱은 흐르는 세월의 흔적으로 더 아름다워 보인다. 전시관에는 바틱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와 연장도 전시되어 있다. 천위에 파라핀을 이용해 무늬를 그릴 때 사용하는 잔핑(Canting), 짚(Cap)은 그 자체로도 예술적이다. 대통령 수카르노가 즐겨 입었던 Batik National은 화려하고 품위가 있으며 수마트라, 발리, 솔로에서 만든 금박으로 된 바틱도 있다. 또 Pekalongan산인 나뭇잎 무늬를 금으로 처리한 바틱 사롱은 우아하고 화려하다. 한 천에 반반씩 이미지를 달리하여 아침과 오후에 바꾸어서 입을 수 있는 Pagi-Sore(아침-저녁) 바틱도 있다. 펙 경제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Batik의 4대 산지는 Solo, Yogyakarta, Pekalongan, Cirebon 지역을 말한다. 해안 지방의 바틱, 즉 Pekalongan, Cirebon 지역은 밝고 붉으며 색채가 풍부하고 전통적인 색깔과는 많이 다른데, 이는 중국이나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무늬는 새와 꽃을 주로 사용했으며 우아하고 화려하며 화교가 많아 중국풍의 무늬가 많다. 인도의 영향을 받은 중앙 내륙지방, 즉 솔로, 족자의 바틱은 색깔이 부드러우면서도 어둡다. 갈색, 검정색, 짙은 청색, 황색등이고 무늬는 꽃과 새, 사선 잇기 등이다. 외양 꼴릿이나 라마야나 등장인물도 많다. 찌르본에서 온 긴 사롱에 유럽 영향을 받은 꽃과 새의 무늬와 밑에는 끝이 뾰족한 삼각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은 이슬람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용, 봉황 무늬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장자리에 큰 칼 모양의 무늬로 된 바틱이 있는데 이것도 찌르본산이다. 테두리에는 아랍어로 적







혀었는데 마호메트만이 하느님의 유일한 예언자라고 적혀 있다. 누사뎡가라 군도에서 온 것은 대체로 화려한 특징이 있고, 람땡(Lampung)에서 온, 순면에 천연염료와 동전을 이용해 만든 차양용 천은 꼭 이색적이다. 티모르 지역의 바틱에 유럽 영향으로 천사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Batik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뜨거운 파라핀(정확히 말하면 파라핀에 송진을 가미한 것)으로 도구(Canting)를 사용해 천에 다시 무늬를 그린다. 그 다음에 색깔의 가지 수 대로 염료에 담가서 착색한 후 삶아서 파라핀을 빼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여러가지 색깔을 낸다. 바틱은 원래는 무명으로 직조한 천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실크를 사용하기도 해 색채가 더욱 풍부해졌다. 바틱에는 그리는 바틱 툴리스(Tulis) 외에도 바틱의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스탬프를 사용해 찍어내는 바틱 째, 바틱 프린트가 있다. 바틱 툴리스는 1가지 색상의 손수건을 만드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며 3~4가지 색깔의 침대시트는 2달 정도. 이처럼 긴 시간과 반복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바틱은 사랑 없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

바틱은 사랑이다.

바틱 만드는 여인은 깊은 눈에 긴 머리 묶어 올리고 영혼의 옷, 철학의 옷 바틱을 입고 절절히 선을 이어 무늬를 넣을 것이다. 바틱의 여인은 사랑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사랑으로 옷을 만들고 사랑 때문에 살다 사랑 때문에 죽을 것이다. 혈떡거리며 갈망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지 길어 넘어질까 안타까이 안타까이 기다릴 줄 아는 숨죽인 사랑을 할 것이다. 바틱 만드는 여인의 집중의 아름다움은 나는 거룩하다하리 정직하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바틱 만드는 여인이여 천천히 견고하게 움직이는 그대 손끝 마디마디마다 신의 축복 있으라.(Cirebon에 있는 바틱 마을 Trusmi의 Ibu Lillis에게 보낸다.)

개관 시간 :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월요일과 공휴일 휴관)

주소: Jl. Aipda K.S Tubun No. 2-4

Tanah Abang Jak. Pusat

전화: (021) 560 6613 Fax: (021) 565 4401

<http://museumtekstiljakarta.com>

입장료 : Rp 5000 (성인), 2000 (대학생)

###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mailto: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http://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mailto: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gmail.com](mailto:jalanjalanindonesia@g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mailto:lovekoin@hotmail.com)



## 무공해 행복을 재배하다



서 미 숙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감사)  
gaeunsuh@hanmail.net

**막**은 풍경과 밝은 기운으로 가득한 2014년 의 새해가 떠오르고 있다. 갑오년의 청마해인 2014년은 모든 한인들이 지난해 뿌린 씨앗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인간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숙한 말처럼 부지런하면서도 진취적인 행복을 수확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무엇보다도 열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적도지방에 오래 살다보니 가끔은 국내에서 먹었던 싱싱한 무공해 야채 샐 생각이 절로난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일 년 중 비가 가장 많이 온다는 우기 철이라 부쩍 입맛이 떨어지는 시기인 탓이다. 요즘 세상은 글로벌 시대에 못지않게 웰빙시대 라고 하여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먹거리 음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몸을 가볍게 해주는 야채식은 노화를 예방해주는 웰빙식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파릇파릇 살아 숨 쉬는 어린잎 새싹에 보리밥과 한국식 양념 된장을 곁들여 먹는 생각만 해도 입맛이 절로 도는 느낌이다.

어릴 적 기억이긴 하지만 한 여름저녁에 고향집 마당 텃마루에 온가족이 용기종기 함께 모여앉아서 먹었던 그때의 풋풋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밭에서 막 따온 갖가지 무공해 채소를 큰 양푼에 담아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고소한 참기름도 넣어 쓱쓱 비벼서 먹던 그 맛! 서로 웃음과 정도 함께 나누며 먹던 시절이었다.

“많이들 먹고 쑥쑥 자라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비타민이 머리로 들어가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단다”. 그 시절, 어머니의 말씀처럼 기말고사를 잘 보는 날이면 어김없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많이 먹었던 결과라고 믿게 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 풋풋한 무공해 채소 식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 되어 내 기억 속을 맴돌고 있다.

다양한 새싹 잎들의 향긋함에 보리밥과 구수한 된장이 함께 어우러진 그 맛은 그때의 내게는 천하일미의 맛이였다. 요즘시대는 어딜 가나 먹거리가 지천을 이루고 있지만 고향 들판에서 해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 냇가에 앉아 종일 흘린 땀을



씻고 집에 돌아와 먹었던 그 시절의 채소 쌈 맛에 비할 수 있으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정성으로 다듬고 걸러낸 행복의 맛이었고 나에게겐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만찬이었기 때문이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어릴 적, 고향의 맛을 느껴보고 싶어 무공해 새싹 재배기를 체험하게 되었다. 다용도 재배기라고도 하는데,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적절한 양의 무공해 채소를 직접 키워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씨앗 크기가 다른 6종의 새싹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는 것이 큰 장점 이었다. 집에서 어렵지 않게 다양한 채소 종류의 새싹 잎을 필요한 만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작은 기쁨을 맛보며 행복을 재배하는 느낌이었다.

넓고 평평한 재배 판 안쪽은 칸칸이 나누어져 있고 재배뚜껑은 빛을 차단할 뿐 아니라 일반 투명 뚜껑에 비해 채소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었다.

특히 새싹 중에서 싹이 나온 후 사흘째에 항암 성분에 좋다는 설폰라텐(Sulforaphane)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브로콜리 싹을 빠르고 알차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수확이었다. 브로콜리는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브로콜리는 맛도 뛰어나지만 각종 비타민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성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선 브로콜리 싹에는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탁월한 설폰라텐의 성분이 2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비타민 U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양배추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 있어 환경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있는 현대를 살면서 인체의 면역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것 같다.

또 풍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 A는 레몬의 2배, 비타민C는 감자의 7배나 된다고 하니 브로콜리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습관처럼 자주 먹어야 하는 채소인 것 같다. 브로콜리 효능은 이쯤 해두고 그렇게 키운 새싹이 먹기 좋게 자라면 그날 저녁의 무공해 식탁이 준비된다. 먹을 만큼 수확(?)을 해서 여리고 가는 잎을 깨끗한 물에 살살 씻어 갖 지은 잡곡밥에 얹어 양념해 놓은 된장에 가볍게 비벼 먹는다. 여기에 오븐에 잘 구워진 연어구이도 식탁에 올리고 와인 한 잔 준비하니 한식과 서양식이 한데 어우러진 훌륭한 식단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새싹 재배기를 행복재배기로 바꾸어 부른다. 아마도 새싹이 소록소록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다보니 신비스럽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 행복지수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 같다.

재배 뚜껑 전면과 후면에 통풍구가 잘 나있어 더운 날씨와 열대의 바람에도 짓무르지 않게 새싹을 보호하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새싹 잎은 한 끼 식단에 많은 양이 필요 없으니 그때그때 재배해서 따먹는 맛을 어느 재미에 비할 수 있으랴.

내가 키우는 새싹 채소는 깨끗한 물, 이곳에서는 야쿠아 물이기도 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물로 키우기 때문에 행여 농약이 의심되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안심 도는 100퍼센트를 능가한다. 재배 판에는 받침대가 있어 뿌리 손상 없이 물도 쉽게 갈아줄 수 있다. 그뿐이 아니라 새싹채소는 식물이 자라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RNA, DNA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하니 그야말로 행복 재배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이다.

특히, 나는 소화력이 약해 다른 채소는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새싹의 씨앗과 다용도 재배기로 조금씩 새싹을 키워 먹을 수 있어서 위를 보호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한몫을 한다.

고국의 무공해 채소가 그리워진다면 새싹재배기를 통해 고향의 정취를 가정에서 한번 느껴보는 것도 행복한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 사랑은 노래를 타고 Melodi cinta

허영순/OKTN (KBS WORLD)

Menurutmu itu terlihat seperti kebentur?  
이게 부딪힌 걸로 보이니?

Kebentur의 어근은 bentur 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 중에) 충돌하다 부딪히다 의 의미로 사용되며 동의어로는 langgar(의견등이...충돌하다. 모순되다, 위법행위) 와 Tabrak (자동차나 어떠한 물리적인 것이 ... 충돌하다, 공격하다) 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문장에 따라 다른 뜻을 내포합니다.

### 1) Terbenhur

ter.ben.tur = tak sengaja/tanpa maksud mengenai/ menabrak/ menemui sesuatu yang menghalangi/ menghambat  
Keterangan: Kebentur itu bentuk sehari-hari (tidak resmi) dari kata Terbenhur. Kebentur는 구어체로 문어체인 Terbenhur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딪힘이나 어떠한 장애요소가 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 Dia pingsan karena kepalanya terbenhur tembok.

그는 기절하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 Semua rencana usahanya gagal karena terbenhur biaya produksi yang tinggi.  
높은 생산비용 문제에 부딪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 2) Langgar

Lang.gar = menyalahi, melawan, menabrak, menubruk, menumbuk.  
의견등이...충돌하다. 모순되다, 위법행위와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 Mencuri adalah perbuatan yang melanggar hukum. 도둑질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Mobilnya rusak karena melanggar pohon. 나무와 충돌하여 차가 망가졌다.

\* 팁 : Langgar 는 작은 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 3) Tabrak

Tab.brak = menubruk, melanggar, menumbuk, membentur.

어떠한 물체에 부딪히거나 충돌하다의 뜻으로 Bentur 와 같지만 무의식 중 또는 의도하지 않은



2014년 갑오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오해는 갑오년의 '갑'의 청색을 의미해 청 말띠라고 하는데도, 유럽에서는 유니콘을 상징해 평화의 해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4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번호는 새로 시작된 사랑을 노래를 타고 "Melodi Cinta" 의 귀여운 아역 배우들의 대사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 못지 않은 입심을 자랑하는데도,
담임선생님의 멍든 눈을 보며 누구와 다툰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채 부딪힌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사용되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 경우가 아닌 자동차 충돌이나 사람과 물체의 물리적 충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점이 Bentur와의 차이점이다.

- Sepedanya menabrak tukang bakso.

자전거는 박소 장수와 충돌했다.

- Orang itu kabur bersama mobilnya setelah menabrak anak kecil itu

그 운전수는 어린아이를 차로 친 후(부딪힌 후) 뺑소니 쳤다.

Tidak. Kurasa ada yang memukulnya. Kau habis berkelahi?

아니.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싸우셨어요?

싸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Berkelahi의 어근은 Kelahi 입니다. 주먹질 싸움, 몸 싸움, 다투다 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동의어로는 bentrokan(노사간... 충돌하다, 분쟁하다), pertengkara(말로 시비하다, 다투다, 티격태격하다) 등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문장에 따라 다른 뜻을 내포합니다.

### 1) Kelahi

Kelahi = bertengkar disertai dengan adu tenaga/fisik. 완력이나 물리적인 것을 이용해 다투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싸움 중에서도 몸 싸움이 일어난 경우를 뜻한다.

- Malu melihat orang-orang itu berkelahi karena hal sepele.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치고박고 하는 것을 볼

때 부끄럽다.

- Anak-anak lelaki biasanya menyelesaikan masalah dengan berkelahi.

아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몸)싸움을 해야한다.

### 2) Bentrokan

Ben.tro.kan = perselisihan, percekcohan, tubrukan. 노사간이나 이견 있는 단체끼리의 (물리적인 아닌 투쟁) 충돌, 분쟁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 Bentrokan antara pendukung calon presiden A dan presiden B telah berlangsung selama seminggu. 대통령 후보인 A와 B의 지지자들간의 충돌은 일주일간 계속 되었다.

- Polisi itu tewas dalam bentrokan anti-pemerintah. 반정부 시위를(투쟁) 하던 경찰이 사망하였다.

### 3) Pertengkaran 어근은 Tengkar이다

Per.teng.ka.ran = perbantahan, percekcohan, perdebatan.

치고박고 완력(몸)싸움이 아닌 (말) 다툼, 시비 등을 나타낸다.

- Akhirnya pertengkaran itu dapat diselesaikan dengan ba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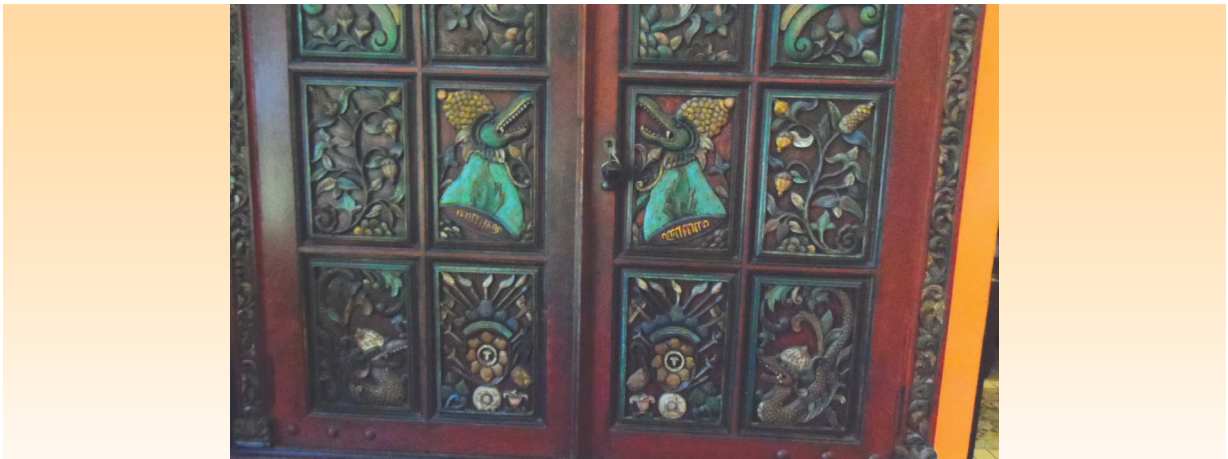
(말)다툼은 좋게 좋게 매듭지어졌다.

- Pertengkaran antara suami dan istri adalah hal yang wajar dan warna dalam pernikahan.

부부간의 (말) 다툼은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참고 Tengkar 와 Kelahi는 동일하게 다툼이라는 뜻을 같지만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242회 문화탐방기

## 보고르의 낙원 (도예가 위다안또의 집을 다녀오며)

권 신 주 (소설가)

2013년 11월 27일 오후 네 시 경에 도착한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알아들을 수 없는 인니어가 귓가에 웅웅거리는 가운데 마중나온 사람을 찾기 위해 두 눈은 바쁘게 움직였다. 30분 가량을 두리번거렸을까, 마중나온 이를 찾지 못한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직 벗지 못한 겨울옷과 안절부절못한 마음, 현지의 더운 날씨 탓에 땀이 비 오듯 흘렸다. 불안감이 공포로 바뀔 즈음, 검은색 옷을 입은 현지인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자카르타에서의 첫 은인이다.

자카르타에선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직업들이 여럿 있다. 내 첫 은인처럼 공항에서 헤매는 이들을 찾아주는 사람,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탓에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돈을 받는 아이들, 서울보다 훨씬 심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정리해주는 남자. 그들을 보며 이 곳 자카르타에 대한 묘한 흥미가 생겼다.

부와 빈곤이 혼합된 도시. 낡아서 매연을 가득 뿜어내는 만원버스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사람들, 중산층이 탈 수 있다는 오토바이들은 자동차들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자칫 사고가 날 법도 하건만 용케도 서로를 피해가는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다. 이곳 자카르타에 대한 첫인상은 카오스(Chaos)였다.

이런 자카르타 중심부와는 정반대의 색깔을 지닌 곳이 있다. 11월 29일에 방문한, 보고르에 위치한 위다안또(F.M Widayanto)의 집이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도예가인 그는 1953년에 자카르타에서 태어났으며 반둥공과대학(ITB:Institut Teknologi Bandung)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자카르타 교외(데벙, Depok)의 푸른 언덕에 위치한 도자기 센터(Rumah Tanah Baru:새로운 땅의 집이라는 뜻)를 운영하며, 가난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 인간적인 면, 삶을 표현한 아판디(Affandi)로부터 영감을 받아 유난히 꽃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는 획일적인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어 한다. 그래서일까 그는 독신주의다.

선배의 소개로 뒤늦게 스무 명 가량의 방문단에 합류한 나는 사전답사를 다녀온 그녀의 감탄사가 가득한 설명에 위다안또와 그의 공간에 대한 궁금증과 호감으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오전 8시 30분에 한국성당에서 일행들을 만났다. 그들은 위다안또의 자택(보고르에 위치)이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다. 나 역시 그들과 동행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했다.

산 속에 위치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본 세월





에 길들여진 시골집들, 웅장함과 동시에 여성스러움을 풍기는 주변 산세, 순박한 눈을 가진 보르르의 사람들, 따스하고 나른한 파장의 마을 분위기, 이들을 배경으로 한 위다얀또의 공간은 어떤 곳일까?

붉은 꽃이 피고 푸른 잎사귀들이 지붕을 덮은 정문부터 그림 같았다. 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하는 위다얀또의 온화한 미소에 대가를 만난다는 설렘 섞인 긴장이 풀렸다.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나는 소설가 지망생이다. 이런 내게 그와 그의 공간과의 만남은 탐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육십 가까운 예술가의 한 생이 고스란히 담겨진 작품들은 어떠할지, 작품을 보고 방문단은 어떤 감동을 받을까, 내겐 어떤 영감이 주어질까? 진지한 관찰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미술관과 다름없는 그의 집을 세 가지 범위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그림들과 도예 작품들, 그리고 온전한 작품으로서의 집, 이것으로 이 글의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그의 그림들, 상당수가 인물화였다. 흰색 바탕에 꽃과 잎사귀들로 치장된 여인들은 고풍적이었다. 도도함을 풍기는 여자, 자유분방한 표정의 여자,

무뚝뚝한 겉모습과는 달리 수줍음을 많이 탈 것 같은 여자, 선함이 눈 속에 담긴 여자,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들 다른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질은 고동색으로 그려진 인물들에게선 투박한 고집과 외부 세상과 단절된 마음이 읽혀 안쓰럽다. 수채화로 그려진 인물들에게선 그들의 힘든 내면이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었지만 삶과의 화해가 묻어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사연이 읽히며 그것들이 꼬리를 물고 나가 머릿속에서 스토리로 확장되었다.

그는 도예가이면서 감성적인 화가이다. 각자의 매력을 강렬하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림을 보면 위다얀또의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느껴진다.

그의 작업실은 넓고 잘 정돈되었으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측할 수 있게끔 순서에 따라 분리되어 있었다. 대략적이지만 구체적인 계산이 엿보이는 여인의 스케치, 색이 입혀지지 않은 마리아상엔 가톨릭 신자로서의 그의 경건한 믿음이 엿보인다.

전통 문양에 고급스러운 색채가 칠해진 도예품은 세련미를 풍겼다. 여러 색을 쓰지 않고 옅은 붉은 색을 농도를 달리하여 한 톤으로 완성한, 나비가 그려진 도자기엔 우뚝투툭한 질감마저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곡물의 여신, 식물의 어머니, 삶과 비옥의 신인 쓰리(Dewi Sri)는 성실과 번영, 공경의



상징이다. 신화 속의 쓰리는 위다얀또의 손을 통해서 재창조되었다. 현대여성의 여린 듯하나 풍만한 곡선미와 자비심 가득한 얼굴, 화려한 의상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도예품들엔 위다얀또의 성실한 땀이 녹아있었다. 새삼 일상에 게으름을 부리는 내가 부끄러워졌다. 예술가의 위대함이란 천부적인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의지를 넘어선 열정과 굳은 장인 정신일 것이다. 고요해 보였던 그의 첫 인상과는 달리 작업 공간에선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게 만든다.

작업실을 둘러본 후 도자기 만들기 체험 시간을 가졌다. 우리들이 직접 손으로 찰흙을 빚어 작품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위다얀또는 친절하게 모두의 작품을 하나하나 손봐주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방문단은 도예가처럼 집중했으며 진지했다. 나중에 완성될 모두의 작품이 궁금했다.

그의 집 외부는 자연에 적당한 인공미가 가미된 곳이다. 정돈된 듯 하지만 야생의 거친 맛이 있고, 그곳이 본래 가진 자연의 전체적인 운곽 속에서 섬세하게 배치된 정원과 연못, 벤치 등의 소품들이 멋스럽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한국영화 ‘봄날은 간다’의 주요 소재였던 자연의 섬세한 소리가 청각이 예민해지면서 생생하게 들렸다. 소리에



집중하며 한참을 서있었다. 곳곳에 심겨진 꽃과 식물들은 튀지 않고 원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한 배경이 되었다. 뒷산으로 연결된 계단을 보고 있노라면 학창시절 읽었던 중세 서구 소설들의 배경과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다. 어스름한 저녁에 맨발로 그의 정원을 거닐며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나무의 노래를 듣고, 별이 뜨는 밤하늘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시를 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도 부르고 싶을 것도 같다. 벤치



를 보면서 인니어를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마시면서 위다얀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은 잘 만들어진 정원이 아니라 그대로 자연이었다. 오랜 도시 생활에 찌든 탓일까. 청정한 공기, 녹음에 몸이 맑아지며 마음을 어지럽혔던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집안 내부는 인도네시아 민속 수공예품과 그의 그림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집 전체의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 벽면의 도색, 장식품들의 배치, 계단 하나하나에 붙여진 문양, 커튼 고리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심지어 화장실 창틀 무늬까지 고풍스럽다. 꼼꼼하다, 섬세하다, 대단하다 등의 단어로 쉽게 말하기엔 그의 노고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

이것을 집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의 작품이었다. 어느 것에도 쉽게 눈길을 줄 수 없었으며 식상한 어휘로 표현할 수도 없었으며 아무렇지 않게 만질 수도 없었다. 예술에 바쳐진 그의 생애와 작품들처럼 그의 집도 완벽했다. 방문단은 갑탄을 연발했으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감상하며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었다. 모두들 위다얀또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는 다정다감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차와 간식이 있었으며 점심으로 나온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손수 그릇에 담아주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우리 그릇을 직접 치우는 모습, 방문단의 질문에 웃으며 답변해주는 것이 겸손해 보였다. 줄무늬 난방과 스포티한 바지 차림의 젊은 감각도 매력적이었지만 한 분야의 정상을 정복을 사람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작별의 시간, 그는 우리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온화한 미소로 배웅해주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못 올 지도 모를 인도네시아, 다시 못 볼 지도 모를 그와의 만남은 처연한 마음마저 들게 했다.

차를 타고 떠나면서 백미러로 멀어지는 정문을 바라봤다. 이곳은 곧 사라져버릴 환상의 낙원,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방문단의 가슴에 새겨진 감성과 영감들은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짧은 시간에 나는 인도네시아의 두 얼굴을 보았다. 자카르타의 혼돈과 보고르의 여유로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두 도시의 상반된 모습이다. 인도

네시아, 참으로 오묘한 나라이다.

종착지인 한국 성당에 도착했다. 마중 나오기로 했던 선배의 차가 교통체증으로 늦게 도착할 것 이란 연락을 받았다. 이유 없는 울적함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감정이 충만해지는 시간, 날은 어둡고 빗줄기도 거세진다. 일행들을 떠나보내고 성당에 혼자 남았다. 이국땅에서의 홀로됨이란 낯선 경험이었다. 외롭고 무서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기분이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황홀감을 느꼈다. 선배가 늦게 도착했으면 싶었다. 그녀가 오기 전까지 MP3에 담긴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며 위다얀또와의 만남을 정리해 보았다.

인간이 가진 어떤 틀과 형식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끊임없는 작품 활동, 오늘 난 위대한 장인을 만난 것이다. 노트에 글이 빠른 속도로 뿅뿅하게 채워졌다. 작가 지망생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준 선배와 참가를 허락해준 회장님께 감사했다.

돌아가면 이곳 자카르타를 배경으로 여러 편의 소설을 쓸 것 같다. 이곳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글 속에서 표현되리라. 아마도 첫 소설의 주인공은 위다얀또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다.



## 도로명주소, 대체휴일제...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된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후 95년 만의 변화다. 대체휴일제도 시행돼 추석 다음날인 9월10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제도가 새해부터 달라진다. 이 중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 금융·세금 - 신용카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명칭변경

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주택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지금까지 9억원 이하 주택 1%, 9억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새해부터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내린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개인간 금융거래를 할 때 이자를 연리 25%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9월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이밖에 펀드는 현행 제조 판매가 분리돼 은행, 증권사가 개별 판매했던 것을 펀드 슈퍼마켓 도입으로 다양한 펀드를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생활·복지 - 관공서 신고 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눈에 띈다.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강·복지 분야를 보면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 받게 되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10~20만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이르면 7월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2014년 2월부터는 지금까지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간 10만원이며, 대상 가구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문화 -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 분야를 살펴보면 최저 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인 셈이다.

이외에도 대체휴일제도가 추석부터 적용돼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 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관람(저녁 시간대 1회 상영분)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협의 중에 있다.

문화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패스’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인구 10만명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됐던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 **항공·교통 - 비행기 이착륙시에도 휴대폰 통화 가능**

항공·교통분야에서는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1월 중 출시된다. 2월부터는 버스, 택시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는 차내에 승객이 없어도 담배를 필 수 없다.

또 새해부터는 비행기를 탈때에 손톱깎이나 긴 우

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탈 수 있게됐으며,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된다.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생활 제도**

분야	내용	시행시기
금융·세금	주택취득세영구인하	1월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 제도로 전	1월
	10만원이상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로 명칭 변경	9월
	개인간금융거래 시이자율 연25%로 제한	7월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3월
생활·복지	도로명주소제도 전면 시행	1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7월이후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지급	7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2월
고용·문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5210원)	1월
	대체휴일제도 도입	추석연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지정	1월
	대학생, 청년 대상 ‘문화패스’ 도입	3월
항공·교통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사용 선불교통카드 출시	1월 중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차내 전면 흡연 금지	2월
	손톱깎이, 긴우산 등 항공기 소지 허용	1월
	비행기 이착륙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 사용 가능	3월
	인천공항 미국행 승객 2차 보안검색 폐지	1월 말





## 계약법 (4)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mailto: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 11.3. 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11.3.1.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11.3.2.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인의 구상권),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 피해보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11.3.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11.3.3.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

라고 피소된 경우

11.3.3.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11.3.3.3. 채무가 만기된 경우

11.3.3.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그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 11.4. 채무보증 시 유념해야 할 사항

채무자는 채무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보증인의 입장은 다르다. 특히 실제 사주가 아닌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법인장 혹은 책임자는 연대보증이나 Personal Gu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무이행을 무한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al Gu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의 생계

비를 버는 임직원의 저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주 및 주주가 감당해야 할 짐일 것이다.



## 12. 계약 위반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위반 행위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델란드 법률전문용어 그대로 Wanprestasi(완프레스타시)라고 쓰고 있다. 인도네시아어로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 라는 용어가 있지만,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 라는 용어는 계약위반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계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부분이 그냥 원어 그대로 Wanprestasi 라고 쓰고 있다. Wanprestasi하면 자연스럽게 손해 배상이라는 문제가 대두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Wanprestasi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 12.1. Wanprestasi의 종류

12.1.1.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Wanprestasi

“예” 를 들면 2008. 10. 31 까지 특정 물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특정 물품을 전혀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12.1.2.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약정한 사항과 다르게 이행한 Wanprestasi. “예” 를 들면 2008. 10. 31 까지 A급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A급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2.1.3.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긴 했으나 약정한 시기에 이행치 않고 시기적으로 늦게 이행한 Wanprestasi  
“ 예” 를 들면 2008. 10. 31 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2008. 10. 31. 이후에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2.1.4. 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항을 어기고 행한 Wanprestasi  
“ 예” 를 들면 시장에 판매하는 자사 제품은 반드시 A사를 통해서만 공급한다는 Exclusive 계약을 맺고 슬그머니 자사 혹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2.1.5. 상술한 형의 혼합 형태 Wanprestasi  
“예 “를 들면 2008. 10. 31. 까지 A급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8. 10. 31. 이후에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 12.2.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사항 범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12.2.1. 계약대로 이행 청구

12.2.2. 손해배상 및 계약대로 이행 청구

### 12.2.3. 손해배상 만 청구

### 12.2.4. 계약 해지 청구

### 12.2.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12.3. Wanprestasi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다르게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민법 제1365조). 계약서에 손해 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어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계약 위반 내용을 시인하고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면 문제가 조용하게 종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인 경우에도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부담을 줄여 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나 아예 손해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 제도를 통하여 강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계약 위반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비 배상, 손실 배상 및 이자 배상으로 정하고 있다.

12.3.1. 경비 배상 : 계약 때문에 이미 발생한 제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 예" 를 들면 오더를 가진 무역회사와 생산시설을 가진 봉제공장 간에 신사복 1,000벌을 2008. 10. 31.에 Delivery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봉제공장은 약정한 대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신사복 1,000벌을 생산 완료하고 무역회사에게 Delivery하려고 하였으나 무역회사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Wanprestasi에 해당되며,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부자재비, 포장비, 인건비, 공장 가동 경비, 금융 경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3.3.2. 손실 배상 :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접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예" 를 들면 유명한 가수가 Show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 출연하지 않은 가수는 Show업체가 이미 지급한 공연장 임차료, 광고비, 장비/설비 임차료 등을 Show 업체에게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약속한 가수가 출연을 하지 않아서 흥분한 청중이 공연장의 장비, 설비 및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가수는 청중이 파손한 공연장의 장비, 설비 및 기물까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12.3.3. 기대이익 배상 : 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으면 발생했을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예" 를 들면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계약대로 무역회사에게 납품했으면 Rp.10억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무역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봉제공장이 기대이익 Rp.10억을 놓쳤으므로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놓쳐 버린 기대이익 Rp.10억을 봉제공장에게 배상해야 한다.

12.3.4. 이자 배상 : Wanprestasi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자 기산시기를 손해 발생 시기부터 요구하느냐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일자부터 요구하느냐는 청구자의 자유이며, 민법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년 6%이나 소송 청구 시에는 통상 세법에 기준하여 월 2%를 요구하고 있다.

## 13. Somasi(최고)

13.1.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Somasi라는 단어는 네델란드어 법률전문 용어이며 인도네시아어로 Teguran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Somasi의 원래의 뜻과 Teguran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



서 Tegura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원어 그대로 Soamsi로 쓰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라는 뜻이며 Somasi는 채무를 상환하라, 동산 혹은 부동산을 명도하라,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재촉을 받을 때, 특히, 채권자가 채권 회수 업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 받은 변호사가 채무자에게 취하는 1차적인 조치는 통상 채무자에게 미팅을 요청하여 채무자와 대면하여 구두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Somasi란 제목으로 시한을 정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한다. Somasi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첫 수순이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대응책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 13.2. Somasi의 법적인 효력

민법 제 1243 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만기 이후 혹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를 선언한 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도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 선언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Default 선언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 될 수 있다. Somasi는 이 만기 문제와 Default 선언 효과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 해주는 것이 Somasi이다. 채무자에게 Somasi를 보내면 법적으로 만기가 되고 Default 선언 효과가 있다.

### 13.3. Somasi 방법

권리보유자/채권자가 직접 하는 방법,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 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다.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경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받아 드리는 정도는 통상 독촉장 정도이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절차가 번잡하고 약간의 경비가 발생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청구 계획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은 변호사비가 발생하나 편리하고 채무자가 받아드리는 정도가 시리어스하다. 변호사가 Somasi를 한 경우에 이를 묵살하는 채무자는 극히 드물며 통상 대부분의 채무자는 시리어스하게 반응을 보인다.

## 14. 계약 해지

14.1. 모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를 합의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판결을 받아내야 계약이 해지된다. 많은 일반인들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의 규정은 상식과 다르게 되어 있다.

“예” 를 들면, 제조업체인 A사와 건설업체인 B사 간에 A사의 공장 건물 건축을 계약하고 B사가 시공하는 도중에 시공 중인 건물의 Quality가 계약과 다른 것이 발견되어 A사가 계약 위반 이유를 들어 B사의 시공을 중단시키고 C사에게 시공을 시켜 건물을 완공시킨 경우에 B사가 A사를 상대로 계약 일방 해지 사유를 들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걸어오면 A사가 많이 불리하다. 계약서 내용 중에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을 위반한 B사는 A사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없고, 건물 Quality가 계약과 상

이한 것이 발견 된 후에 A사와 B사 간에 계약 해지 합의가 없으므로 법에서는 오히려 A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일방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B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A사에게 명할 가능성이 높다.

14.2. 민법 제1266조는 모든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계약 해지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 위반 내용이 전체 계약 내용에 비해 미미한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자가 너무 큰 손실을 당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예” 를 들면 신사복 1,000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신사복 1,000벌을 납품했는데 단추 한 개가 잘못 달렸다는 이유로 납품을 받는 업체가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며 납품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납품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 내용의 정도에 비해 납품업체의 손실이 너무 크므로 법은 계약 위반자의 위반 내용에 상응한 책임만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어느 쪽의 손실이 더 큰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이 해지되면 발생할 손해를 주장하여 손해 배상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청구

하지 않은 사항은 판사가 판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소송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은 판사가 반드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거가 확실한 사항은 모두 청구하여 배상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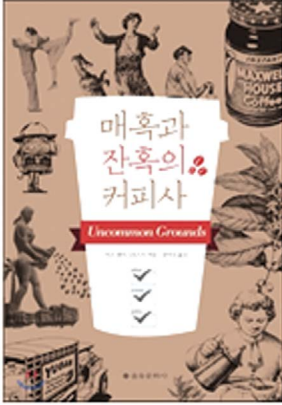
## 15. 책임 전가

민법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전가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 전가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 전가이다. 파업, 강도, 도난, 소요사태, 화재, 법규 변경으로 인한 계약위반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분명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 를 들면 1997년 7월 하순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천재지변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이다.

(다음호에 계속)



#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

마크 펜더그라스트 저/정미나 역  
| 을유문화사

호기심에 발동을 걸어 주는 커피의 유례부터 시작되는 이 책은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커피에 빠져들게 됐는지 전과 과정을 보여 주고 나서, 참혹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예들 그리고 노

예제가 없어지고 나서도 노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농민 노동자들의 모습과 커피가 농장주들의 배만 불리는 현실을 비추곤, 커피 마케팅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격동의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지는 내전 시기와 맞물려 한쪽에서는 라디오와 TV가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마케팅의 세계가 그려지며 그 당시의 유쾌한 문화와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 불황 속에서도 커피는 혼자 호황을 누린다. 하지만 커피의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그렇게 커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스페셜티 커피 열풍은 지금도 이어지며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렴한 커피 값을 위해 희생되어 온 농민 노동자를 돌아보는 공정무역 등 일련의 노력들이 소개되며 꽤 흐뭇하게 마무리 된다. 마지막에 완벽한 커피 추출을 위한 팁까지 제공하면서.

## 조선의 일상, 법정에서다

한국고문서학회 저 | 역사비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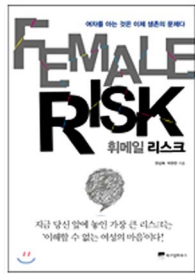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 분쟁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인간 본연의 특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사회의 갈등? 욕망이 드러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사회의 진솔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국고문서학회는 조선시대에 일어난 분쟁과 소송 사례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자취를 더듬었다. 이 사례들 속에는 매매 분쟁, 상속 분쟁, 도서(島嶼) 분쟁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생소한 축첩(蓄妾: 첩을 들이는 것)으로 발생한 첩 자녀의 신분 귀속 분쟁, 자매(自賣: 스스로를 파는 것), 묘지 분쟁, 그리고 향촌 사림의 갈등과 공동체의 물싸움, 부세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 양상이 망라되어 있다.

## 취미일 리스크 FEMALE RISK

한상복, 박현찬 공저 | 위즈덤하우스

상당 수의 가정에서 여성이 CEO로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젊은 남성들이 어머니 세대보다 강해진 알파걸을 만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취미일 리스크(Female Risk)』는 이처럼 강력해진 여성을 움직이는 동기를 최신 경제·경영 이론은 물론 다양한 인문적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장바구니 중심



의 소액 소비 주체였던 여성들이 이제는 소비시장의 주도권을 장악, 유행과 트렌드를 이끌어가며 ‘부드러운 힘’을 발휘해 산업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여성적 특성 및 여성들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비즈니스는 물론 개인 차원의 성공과 행복을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남성의 생존 화두는 바로 여자의 마음인 것이다.





### 가업을 잇는 청년들

백창화, 장혜원, 정은영 공저/  
이진하, 정환정 사진 | 남해의 봄날

저자는 의사나 법조인, 외교관 등 부의 대물림이 아닌 진정한 가업의 사례들을 찾아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국 곳곳을 다녔다. 서울, 충주, 대구, 통영, 부산, 구례를 오가며 대장장이, 시계수리공, 오일장 장돌림, 농부, 떡 기능인, 두석장 등 다양한 직업과 사연을 갖고 있는 가업을 잇는 청년들과 가족의 다채로운 삶을 만나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다양한 직종에서 땀 흘리고 있는 청년들의 도전을 통해 다른 삶, 다른 꿈의 가능성과 가치,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 새로운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편안한 일을 선택하려는 요즘 청년들에게 더 넓은 시야와 깨달음을 전해 줄 것이다.



### 아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폴 터프 저/권기대 역/손석한 감수 | 베가북스

공부보다 뜻심, 호기심, 자제력, 사회성, 열정, 긍정, 감사의 7가지 성격 강점들

이 아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실제 사례로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와 역경에도 성격 강점을 키워 성공의 길에 접어든 젊은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뇌과학자들의 과학적 연구는 이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본 도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학교 교육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흥미롭고 유익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개천에서도 여전히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

###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

도티 빌링턴 저/윤경미 역 | 작은씨앗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의 삶에게 당당해지기 위한 성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책은 46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는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다. ‘어떤 성인들은 평생 동안 성장을 해 나가는 반면, 왜 다른 성인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그만그만한 모습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라는 명제에 착안한 저자는 늘 성장하는 성인들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중년의 나이에도 대단히 활력적이며 늘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면담했다.

### 인천 상륙 작전 I

윤태호 글,그림 | 한겨레출판



『이끼』 『미생』 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윤태호 작가의 신작. 늘 배가고프지만 씹씹하게 뛰어놀고, 가끔 미군에게 ‘초코렛또’ 를 얻어먹기도 하는 철구, 글을 일찍 깨쳐 집안의 기대를 모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가족을 굶기는 철구 아버지, 일체 때 일본순사의 뒷일을 봐주다 해방이 되자 재빠르게 살길을 모색하는 삼촌, 그런 삼촌을 멀리하다가 먹고살기 위해 동조하게 되는 철구 엄마까지. 격동기를 거쳐 간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철구네 가족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통과하며 정치적 혼란과 전쟁의 참혹함, 급변하는 사회상을 보여준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 2013년 한인회 임원산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명예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3	20,000	
2	한인회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20,000	
3	한인회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3	10,000	
4	한인회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3	5,000	
5	한인회부회장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3	5,000	
6	한인회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3	5,000	
7	한인회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SECURITIES	2013	5,000	
8	한인회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3	5,000	
9	한인회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3	5,000	
10	한인회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3	5,000	
11	한인회부회장	이 진 수	PT. SUNG BO JAYA	2013	5,000	
12	한인회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3	5,000	
13	한인회부회장	조 용 우	외환은행	2013	5,000	
14	한인회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3	5,000	
15	한인회부회장	최 상 학	우리은행	2013	5,000	
16	한인회부회장	황 의 상	PT. INWHA INDONESIA	2013	5,000	
17	한인회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3	1,000	
18	한인회자문위원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3	1,000	
19	한인회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3	1,000	
20	한인회자문위원	김 영 만	PT.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2013	1,000	
21	한인회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3	1,000	
22	한인회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3	1,000	
23	한인회자문위원	박 동 희	PT. TRIKARYA ALAM	2013	1,000	
24	한인회자문위원	박 현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3	1,000	
25	한인회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3	1,000	
26	한인회자문위원	양 영 연	PT. TAEWON INDONESIA	2013	1,000	
27	한인회자문위원	오 세 윤		2013	995	
28	한인회자문위원	엄 석 준	NEW-WORLD MEDICAL	2013		10,000,000
29	한인회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3	1,000	
30	한인회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3	1,000	
31	한인회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3		10,000,000
32	한인회자문위원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3	2,000	
33	한인회자문위원	장 주 현	PT. INKO PRIMA UTAMA JAYA	2013		10,000,000
34	한인회자문위원	정 무 응	코린도장학재단	2013	958	
35	한인회자문위원	조 용 준	PT. TIGA BINTANG JAYA	2013		10,000,000
36	한인회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 INDO	2013	1,000	
37	한인회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3	1,000	
38	한인회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3	1,000	
39	한인회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3	1,000	
40	한인회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3	1,000	
41	한인회이사	김 경 국	PT. N E S	2013	1,000	
42	한인회이사	김 달 수	PT. KIDECO JAYA AGUNG	2013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43	한인회이사	김도상	PT. HONGIK INDONESIA	2013	1,000	
44	한인회이사	김문호	PT. DADA INDONESIA	2013	1,000	
45	한인회이사	김문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3	1,000	
46	한인회이사	김상태	SMS GROUP	2013	1,000	
47	한인회이사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2013	1,000	
48	한인회이사	김세형	PT. BTEXB INDONESIA	2013	1,000	
49	한인회이사	김종현	PT. KOIN BUMI	2013	1,000	
50	한인회이사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3	1,000	
51	한인회이사	김현재	PT. GAYA IROSAM JAYA	2013	1,000	
52	한인회이사	노승원	PT. SGWICUS INDONESIA	2013	1,000	
53	한인회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3	1,000	
54	한인회이사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2013	1,000	
55	한인회이사	배정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3	1,000	
56	한인회이사	서영율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3	1,000	
57	한인회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13	1,000	
58	한인회이사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2013		10,000,000
59	한인회이사	안상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3	1,000	
60	한인회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3	1,000	
61	한인회이사	안홍제	PT. KOLON INA	2013	1,000	
62	한인회이사	양시완	PT. KISWIRE BALARAJA INDONESIA	2013	1,000	
63	한인회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2013	1,000	
64	한인회이사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2013	1,000	
65	한인회이사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2013	1,000	
66	한인회이사	윤석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3	1,000	
67	한인회이사	이상일	PT. U I B	2013	1,000	
68	한인회이사	이석태	PT. U F U	2013	1,000	
69	한인회이사	이종억	KOREAN AIR LINE	2013	1,000	
70	한인회이사	이종현	PT. LEO KORINSIA	2013		10,000,000
71	한인회이사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2013	1,000	
72	한인회이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2013	1,000	
73	한인회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2013	1,000	
74	한인회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3	1,000	
75	한인회이사	임성필	PT. LSP INDONESIA	2013	1,000	
76	한인회이사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3	1,000	
77	한인회이사	정용완	PT. HUNG-A INDONESIA	2013	1,000	
78	한인회이사	정주성	PT. DEASUNG HI-TECH	2013	1,000	
79	한인회이사	정철주	PT. DONG-IL INDONESIA	2013	1,000	
80	한인회이사	조호신	PT. SONERGY	2013	1,000	
81	한인회이사	차상만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3	1,000	
82	한인회이사	현정규	PT. MEKAR SAMMI JAYA	2013	1,000	
83	한인회이사	홍기호	PT. AURORA INT'L CO.	2013	1,000	
84	한인회이사	황윤홍	자카르타경제일보	2013	1,000	
총 금액					\$177,953	Rp60,000,000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 안인외사무국 안국직원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인도네시아 국적자 우대)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플라빠가당)	723 0807
(땅그랑)	471 8047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مْ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참피온**



**환전**  
승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佳者**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	----------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JAKARTA BIZ DAILY**  
 Patra Jasa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I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kt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bn.net.id, doowangjkt@gmail.com

Salon & Beauty Shop 272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뽕독인다)	315	1033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쁘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쁘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안하우스(반등)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쁘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빔)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쉴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KORINDO Plants the Green



##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http://www.samsung.com/id)





**KMK GROUP**

성공하는 기업보다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KMK GROUP 의 희망입니다.



**INNOX**



**INDONESIA NO.1 NATIONAL SPORTS BRAND**

**Eagle**  
SINCE 1988



**K1**



**K2**



**RCI**



**HTM (K5)**





# 30년의 선물

##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뚝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깔리만탄 Pas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